

글. 정이숙_ Jeong, Yi-suk

(주)플랜티브 이사

이타미 준을 만나러 제주에 가다

Went to Jeju to meet Itami Jun

작년 3월에 건축사지의 제주 지역 건축 특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이후 꼭 1년 만에 제주를 찾았다. 꼬박 4일을 제주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작정을 하지 않았다. 오직 재일동포 건축인 이타미 준의 물, 바람, 돌, 두손 미술관을 관람하는 일을 유일한 계획으로 잡았다. 작년 지역 특집을 진행하면서 제주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둘러보았는데 재일동포 건축인 이타미 준의 미술관들을 빠트려서 내내 아쉬웠던 때문이다.

하지만 이타미 준을 만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미술관이 자리 잡은 곳이 상위 1%를 위한 별장형 최고급 연립주택이라고 불리는 핑크스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정원 안이기 때문이었다. 상위 1프로는 꿈도 못 꾸는 서민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는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에 예약하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 했다. 그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에 들러 피자과 우동을 먹고 미술관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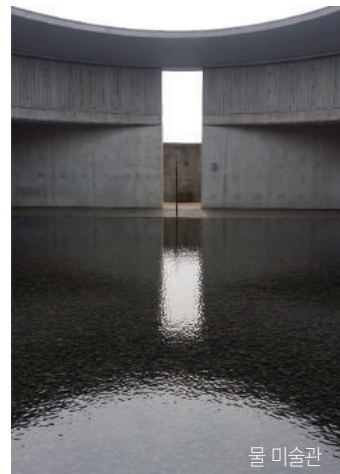
바람 미술관 외관



바람 미술관 내부

고급 주택 단지의 정원으로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제주 중산간의 일부로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나무 집이 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람이 들어가고 나오기 쉽게 얇은 나무판을 빗살 모양으로 이어 붙인 집이었다. 바람 미술관이다. 안으로 들어서니 바람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웅장하게 들린다. 나무판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쏟아진다. 잠시 돌의자에 앉아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볼 수 없는 바람이 땀을 어루만지고 '어떻게든 살아가라, 살아가라' 속삭인다. 바람 미술관에 다른 전시물은 없다. 순간순간 다른 소리를 내는 바람이 1년 365일 전시된다.

바람 소리를 뒤로 하고 물 미술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그란 미술관 건물이 우주선처럼 보인다. 안으로 들어서니 지붕이 커다란 원형으로 뚫려 있고 바닥엔 네모 모양의 틀에 물이 담겨 있다. 작은 호수 같기도 하고 커다란 빨래터 같기도 하다. 바람에 물결이 일고 뚫린 지붕으로 하늘이 들어와 물에 비친다. 물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번 쳐다보고... 어느새 하늘을 보는데 물이 보이고, 물을 보는데 구름이 보인다. 안과 밖의 경계는 지붕도 없이 겨우 얇은 벽 한 장인데 안에 있으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곳의 풍경이 궁금해진다.



물 미술관



돌 미술관

다음은 돌 미술관이다. 이름에 걸맞게 입구에 손 모양의 돌이 턱 하니 놓여 있다. 안에 들어가면 통유리창으로 입구에 놓인 돌의 모습이 보인다. 미술관은 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쇠로 지어져 팍 막혀 있는데 꽃처럼 천장의 일부가 뚫려 있다. 하트 모양 쇠의 꽃처럼 보인다. 그 뚫린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해의 위치에 따라 빛이 그리는 하트의 위치가 달라진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거라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트가 비추는 바닥에는 매끈매끈한 돌이 하나 놓여 있다. 저절로 어루만지게 된다. 부드럽고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 안에 오래오래 남는다.

돌 미술관 옆에는 두손地中 미술관이 산방산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전시물은 땅속 지하인 지중에 두는데 햇빛을 끌어들이는 커다란 창 때문에 지하가 어둡지 않다.

네 군데 미술관을 모두 둘러 보고 비오토피아를 빠져 나왔다. 비오토피아는 22만평의 대지 위에 4만평이 생태공원이고 고대 잉카문명의 마추픽추를 모티브로 하여 이타미 준이 설계한 타운하우스 249세대와 120여채의 빌라가 한적하게 놓여 있는 고급 주거지 또는 별장지이다. 바로 옆에 역시 이타미 준이 설계한 방주교회와 또 다른 세계적인 일본 건축인 이타미 준이 설계한 본태미술관이 있다. 거장들의 건축물과 그것이 놓인 자연 공간 그리고 안에 담긴 전시물들을 보면서 돈이 많아서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얻어놓으면 참 좋겠구나, 부질없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다.

비오토피아에 있는 이타미 준의 미술관들이 압도적인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려 지어졌기 때문이다. 미술관들이 저마다 위치한 곳의 언덕과 풀, 나무들을 해치지 않고 겸손하게 서 있고, 하늘과 바람, 빛과 어둠을 전시물 자체로 활용한 때문이다. 그들을 보기 위해 항공료를 지불하고 비싼 밥값을 내고 하루 종일을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을 보면 건축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서울로, 일상으로, 번잡함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 오자마자 제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제주에 갈 날을 꿈꾼다. 그 때도 이타미 준을 만나러 물, 바람, 돌 미술관에 갈 것이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물·바람·돌 같은 자연을 공간 안에 컬렉트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물, 바람, 돌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고 올 것이다.



돌미술관의 외부 돌과 멀리 보이는 두손 미술관

여담 : 이타미 준은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쓰러지는 순간까지 도쿄 세타가야의 아틀리에 책상에 한일·일한사전을 올려두고 모국어를 잊지 않으려 했다. 그는 계속 한국 국적과 유동룡이라는 한국 이름을 고수했는데 데뷔작을 발표할 때 성에 쓰는 유(庾)라는 한자가 일본에 없어 활동하기 위한 이름을 이타미 준이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 한국 갈 때 이용했던 이타미(伊丹) 공항에, 친하게 지내던 작곡가 길옥윤의 마지막 한자 윤(潤·일본 발음 준)을 합쳐서 이타미 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2011년 타계한 그의 유해 절반은 아버지의 고향 경남 거창에, 절반은 그가 '제2의 고향'이라 말했던 제주 바다에 뿌려졌다.

글. 이은정_ Lee, Eun-jung

CJ파워캐스트 프로듀서

새로운 공간, 멀티프로젝션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몽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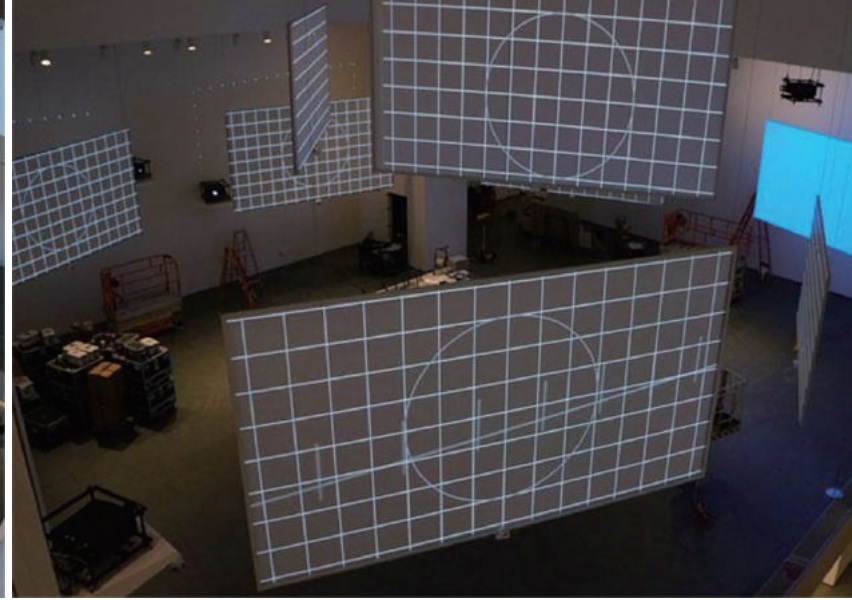
Architecture montage in Multiprojection

최근 들어 현대미술의 관객들은 갤러리, 미술관 또는 비엔날레 전시에서 다양한 스크린 기반 설치작품과 마주친다. 국내에서도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쉬린네샷 展>, <예스퍼 유스트: 욕망의 풍경>을 비롯해 2013년대 서울시립미술관의 <VIDEO FEVER - SCREENING LIVE PERFORMANCE TALK>, 일민미술관의 <애니미즘>, 2012년 백남준 아트센터 <더그 에이트킨 - 전기지구>, 2011년 스페이트 아트 씨의 <VIDEO Tale>, 2010년 아트선재 센터의 <플랫폼 2010 프로젝티드 이미지> 등 최근 5년간 영상설치 작품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다. 갤러리 영화(gallery film)또는 전시영화(cinema d'exposition)라고 명칭 되는 스크린 기반 예술 형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갤러리 영화를 제작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대미술의 한 경향으로 출발한 갤러리 영화는 미술에서의 설치미술 혹은 비디오 아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히려 영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종류의 경험을 생산해 낸다. 설치 영상 작품은 제도영화 바깥에서 기술적 미학의 가치를 사용하여 영화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와 관람의 정의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영화의 상영처럼 더이상 한 가지 포맷으로 영상이 표현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시되는 공간이 어떤 크기와 조건들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스크린을 설치하고 다른 형태의 구현과 경험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상설치 작품들은 멀티프로젝션 작업을 통해 스크린의 위치, 크기 등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공간적 상황을 구조화 시키고 있다. 영화의 프로젝션을 떠올리게 하는 스크린 여러 개를 갤러리 룸 안으로 구성적으로 배치하면서 스크린의 공간과 화면공간, 그 안에 개입하게 되는 관객 사이의 새로운 공간적 문맥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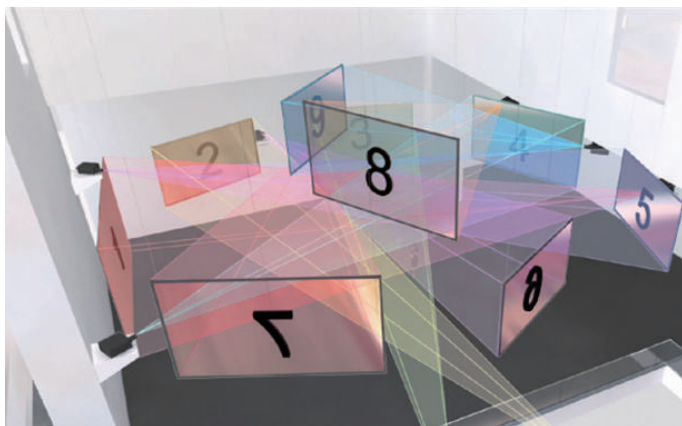


서울예대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MFA과정을 취득 하였다. SBS를 거쳐 현재 CJ powercast 프로듀서로 근무 중이며 영화뿐 아니라 영상,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





Peter Weibel은 멀티채널 프로젝션을 화면 분할 기술에 의해 다수의 이미지로 분배되거나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벽에 이미지를 위치시킴으로써 이미지가 해체되거나 증가되는 스크린 기반 전시형식으로 관습적인 개념의 회화, 이미징의 기술을 사회적 관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시각 문화라고 정의 내린다.¹⁾ 이제는 영화적(Cinematic)요소가 전시공간의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 되었고, 현대미술은 작품을 통해 공간 안에서 반응 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고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품과 관객, 그리고 그 관계 속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작품에서 벗어나 대상과 더불어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창조되는 경험으로서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적 고민과 맞닿아 간다.



<Isaac Julien, 천 개의 파도 (Ten Thousand Waves)> 2010 - 3개의 이야기가 9개의 스크린으로 진행되었는데, 1930년대의 한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분할되어 상영되면서 관람객들이 다 채널 스크린을 통해 영화의 분할적 편집을 경험한다.

할 포스터는 그의 저서 「The Art-Architecture Complex」에서 시각예술과 건축의 만남을 통해 예술이 점점 건축적 양상을 드러내고, 예술작품이 공간을 형성하고 점유해 나가면서 감상하는 수용자의 태도 또한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공간에 접근하는 관객의 신체적, 인지적 경험을 담아내려는 시도는 1960년대 미니멀리스트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영상매체는 디지털 기술과 발전하면서 공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술작품은 감상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갖게 되었고 심미적 체험 또한

확장되어 새로운 공간과 관객성을 성찰하게 한다. 영화가 건축으로부터 물려받은 관객성은 영상 매체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공간으로서 활발히 일어나고 디지털 적용과 함께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Pipilotti Rist - Pour your body out> 2008 - 압도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환경으로, 전통적인 영화적 관람과 동일하지는 않은, 새로운 장치들과 플랫폼의 구성에 힘입어 새로운 장소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1) Peter Weibel, 『Narrated Theory : Multiple Projection and Multiple Narrative (past and future)』 Martin Rieser, Andrea Zapp, 『New Screen: Cinema/Art/Narrative』, British Film Institute, 2008, p.42-43

글. 김충호_Kim, Chung-Ho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 박사과정

미국 도심 재개발의 속도: 시애틀의 교훈

How Fast is American Urban Renewal?: Lessons from Seattle

한국은 빠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빠른가?

한국은 유독 건설 관련 세계 기네스북 등재 기록이 많다. 세계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은 아파트를 건설한 기관 (대한주택공사, 84,397 가구, 1992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33.9km, 201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293,905 m², 2009년)을 비롯한 여러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여러 기록들은 “규모” 뿐만 아니라, “속도”에 의해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는 건물만 빠르게 짓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도 빠르게 만들고, 기존 도시 역시 빠르게 재생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빠른 “속도”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빠른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미국 시애틀의 도심 재개발 사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개발 속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최종 결과물의 차이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 (2003년 7월~2005년 10월)은 오늘날 미국의 건축·조경·도시의 학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도심 재개발 사업의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청계천 복원 사업에 비견될 수 있는 사업이 시애틀에서도 오늘날 진행되고 있다. 시애틀 도심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이 그것인데, 노후화된 차량 중심의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는 점에 있어, 청계천 복원 사업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년 3개월여 만에 공사가 완료된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는 달리, 시애틀 도심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현재 예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 시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두 사업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무엇이 이런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러한 속도의 차이가 최종 결과물의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시애틀의 청계천 복원 사업

흥미롭게도 시애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지진이었다. 2001년도에 발생한 진도 6.8의 니스퀼리 지진

(Nisqually earthquake)은 당시 알래스카 고가도로(Alaskan Way Viaduct)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고가와 고가 하부 방파제의 지속적인 침하를 일으켰다. 이에,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고가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게 되었으며, 시애틀 시는 고가를 개선 또는 대체할 90여 개 이상의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사실 그 동안, 알래스카 고가는 도심부 차량 교통의 중요한 통로였지만, 워터프런트로의 접근성과 친환경성을 저해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져 왔었다. 결국, 지진으로 촉발된 고가의 안전성 문제는 시애틀 도심부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복합화 사업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시애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은 크게 서로 결합된 3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사업은 알래스카 고가 철거와 지하 대체 터널 건설 사업(Seattle Alaskan Way Viaduct Demolition and the Replacement Tunnel Construction)이다. 시애틀 시는 여러 대안의 검토 결과, 알래스카 고가를 전면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대신해, 2016년 후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2개 층으로 구성된 총 4차선 2 mile(3.2 km)에 이르는 지하 대체 터널을 도심부에 건설하고 있다. 도심부의 지하를 관통하는 지하 터널은 2013년부터 오사카의 히타치 조선소(Hitachi Zosen Corporation)에서 제작한 8000만 달러의 보링 기계로 현재 시공되고 있다. 이 보링 기계는 99m의 총 길이, 6700톤의 무게, 역사상 가장 긴 17.5m의 톱날 길이로 유명하다.

두 번째 사업은 엘리엇 만 방파제 보강 사업(Elliott Bay Seawall Project)이다. 2001년의 니스퀼리 지진은 알래스카 고가뿐만 아니라, 고가의 기초를 이루는 엘리엇 만의 방파제 역시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알래스카 고가의 철거와는 별도로 방파제 위의 도로와 보행로 전반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시애틀 시는 알래스카 고가가 철거되는 대로 약 80m 깊이의 방파제 보강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깊이는 연약지반 아래의 암반에 이르는 거리이며, 시애틀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 높이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깊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넓은 차선과 보도의 알래스카 길(Alaskan Way)이 방파제 위에



시애틀 도심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
전후의 모습
(Source: 개인 블로그, GIZMODO)
<http://gizmodo.com/6-freeway-demolitions-that-changed-their-cities-forever-1548314937/+alissawalker>

건설될 예정이다.

마지막 사업은 시애틀 워터프런트 정비 사업((Waterfront Seattle)이다. 2010년 시애틀 시는 워터프런트 정비 사업을 맡길 회사에 대한 국제 경쟁 공모를 통해, 뉴욕의 하이라인 (New York City High Line) 프로젝트를 수행한 제임스 코너의 필드 오퍼레이션 (James Corner's Field Operations)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필드 오퍼레이션의 계획안은 엘리엇 만의 공공성을 위해, 휴식, 산책, 조깅, 자전거, 관광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피어와 산책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심부에서 워터프런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수족관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램프뿐만 아니라, 연결 가로와 보행로의 개선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애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이 우리의 건축과 도시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청계천 복원 사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 승부수가 바탕이 된 속전속결의 도심 재개발 사

업이었다면, 시애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은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시민적 논쟁으로 지연되면서, 지속되어온 사업이다. 공사가 본격화되기까지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현재 예상하고 있다. 그런 장기간의 사업 시간으로 인해, 값이 저렴해진 세계 최대의 보링 기계를 활용하는 지하 대체 터널의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는 것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 필드 오퍼레이션의 밑그림이 완성되면, 시애틀은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시애틀 공립 도서관을 능가할 세계적 명소를 도심부에 얻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계천 사업의 2년과 시애틀 사업의 20년, 장기적으로 무엇이 더 큰 가치를 도시에 만들어낼까?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빠른 것 못지않게 오랜 시간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회의 역량을 쏟아 붓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결과물의 완성 속도가 아닌 결과물의 완성도가 보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아닐까?

글. 송준환_ Song, Jun-hwan

동경대학 특임연구원

「공·민·학」연계에 의한 공공공간 디자인과 지구매니지먼트

Design and Management of Public space based on Public-Private-Academic Collaboration

지금까지의 공공공간은 관(官)에 의해 관리되는 공간으로서 주민·민간주체가 관에 의한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하는 패시브한 개념으로서의 「행정적 공간(Government Space)」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본 또한, 성장개념에 근거한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공공간을 만들어왔으나,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념이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의 재정난 속에서 민간의 조직에 의한 지역 활동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행정의 관리대상이었던 공공공간에 있어서도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일 경우, 민간주체에 의한 관리 및 운영활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지구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의 개념이 2011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개정 등에 따라 조금씩 도입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의 치바현(千葉県)카시와시(柏市) 카시와노하(柏の葉)캠퍼스역 앞 공공공간의 제3섹터에 의한 유지, 관리 및 활용을 들 수 있다. 동경도심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카시와노하 지구는 동경도심의 아키하바라(秋葉原)와 츠쿠바(筑波)사이에 2005년 개통한 TX선 카시와노하캠퍼스역 주변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면적273ha, 계획인구26,000명 2023년 전체완공예정)으로 지구 주변에는 동경대학, 치바(千葉)대학을 시작으로 국가의 각종 교육 및 연구시설이 입지해 있고, 대규모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신개발 계획지구이다.

■ 「공·민·학」연계에 의한 플랫폼 조직- 카시와노하 어반디자인센터(UDCK)

카시와노하 어반디자인센터(Urban Design Center Kashiwanoha, 이하 UDCK)는 전철역 개통과 함께 새로운 도시개발의 진행에 있어서, 유연한 지구계획 및 개발추진을 위해 동경대학교수(故·키타자와타케루)의 제안을 바탕으로 공(카시와시, 카시와시 마치즈쿠리공사, NPO), 민(미츠이(三井)부동산, TX선, 카시와상공회의소, 지역자치회), 학(동경대학, 치바대학)의 7개 구성단체에 연계에 의해 2006년 11월에 창설되었다. 본 조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①다주체의 인적·지적·금전적 「십시일반」으로 공동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건축 및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지닌 전

임 스태프 7명이 존재하여 다양한 활동을 코디네이트하고 지구계획 전체를 총괄해나가는 등 계속적으로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는 점, ③다양한 주체가 회의와 이벤트 등 일상의 활동거점이 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상징적인 거점시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마치즈쿠리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 공간디자인계획, 주민 커뮤니티활동의 전개, 지구 구상의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개방적이고 상징적 거점시설로서 UDCK

UDCK가 창설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블록별 개발에 맞추어 3번에 걸쳐 시설장소가 이동, 변경되었다. 2번의 가설건축물이후, 현재에는 역 앞 동경대학건물 1층에 입지하고 있다. 외부에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테라스가 구성되어 있고, 누구라도 입관가능하며 연말연시를 제외하고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무휴로 개관하고 있다. 특히, 1/1000스케일의 거대 지역모형이 설치되어 도시의 현재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 시설을 방문한 누구든지 지구의 미래상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전문가 및 주변 지역주체들이 주위에 모여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거점시설은 지구의 아이콘으로서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역 관련 주체(행정·개발사업자·지역주민·토지소유자·NPO 등)가 자유롭게 부드러운 연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공공성 확보에 근거한 공공공간 매니지먼트의 실현

미츠이부동산이 2번째 개발단계로서 역 앞 상업 및 호텔복합시설의 오픈(게이트스퀘어, 2014년7월)에 맞추어, 역 앞 공공공간(도로 및 교통광장) 또한 직접 재원투자를 통해 질적 개선을 실시하였고, UDCK가 카시와시와 협정을 체결하여, 정비된 공공공간상의 보도 및 식재, 조명 등의 도로부속물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물(데크, 벤치, 가로시설물, 사인 등)의 유지관리를 총괄 담당하여 행정의 관리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미츠이부동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퍼블릭마켓 이벤트 활동 등을 공공공간 상에서 실시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출점료 등의 수익을 지역환경 정비 및 개선 활동에 환원하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보도 상에 벤치와 소파,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의 「제46조 도로 및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특례」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이를 관리하는 UDCK가 「제73조 도시재생정비 추진법인」에 의한 지정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본 지구의 주요 개

발주체는 미츠이부동산으로서 단순한 민간필지의 개발만이 아니라 지역전체의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광장을 포함한 공공공간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이 직접적으로 디자인에 관여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사례라 볼 수 있고, 법제도상 지정을 받은 제3섹터인 UDCK의 존재는 행정과 민간기업간의 관계 속에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공간의 질 높은 관리와 이용 및 활용이 유연하게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1.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研究会, 『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開かれたまちづくりの場』, 理工図書, 2012
2. 송준환,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에리어매니지먼트의 역할과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4

1_ UDCK의 외부전경과 회의하는 내부모습

2_ 공공공간 상의 지역 퍼블릭 마켓활동



2

통영국제음악당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Hall



설계자 | 이광만_KIRA |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집은 나를 표현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축사. 그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한국은행 본점(1981), LG 중앙 연구소(1985), 포항공과대학(1987), 통신개발연구원(1990), 포스코 센터(1995), 보현빌딩(2005), 남서울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리모델링(2006), 타워호텔 리모델링(2008), 가천대학교 길병원 암센터(2008), 더케이타운타워(2012), 이원생명과학연구원(2012), 선운카운티 골프텔(201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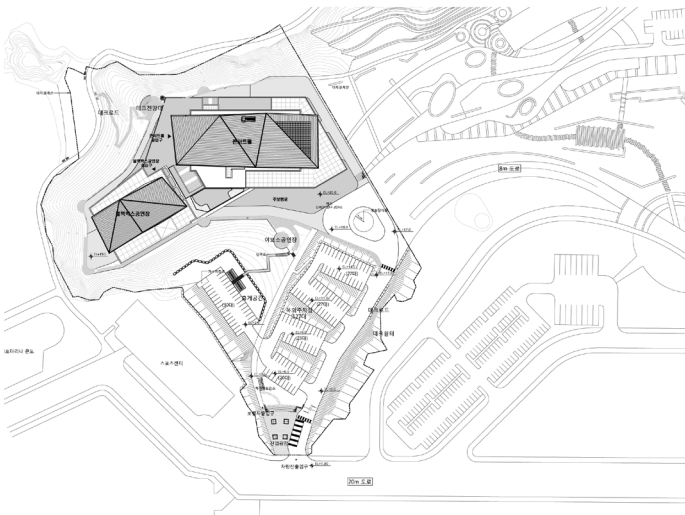
설계자 | 오동희_KIRA |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오동희 건축사는 간삼의 설립 시기인 1983년부터 현재까지 간삼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공간이 하나의 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프로젝트로 포스코센터(1992), 연합철강 사옥(1995),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2003), 알펜시아리조트(2005), 포스코 E&C타워(2006)와 제주 Casa del Aqua Hotel & Resort(2007), 사랑의 교회(2011) 등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제주 한국국제학교(2013)와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2014)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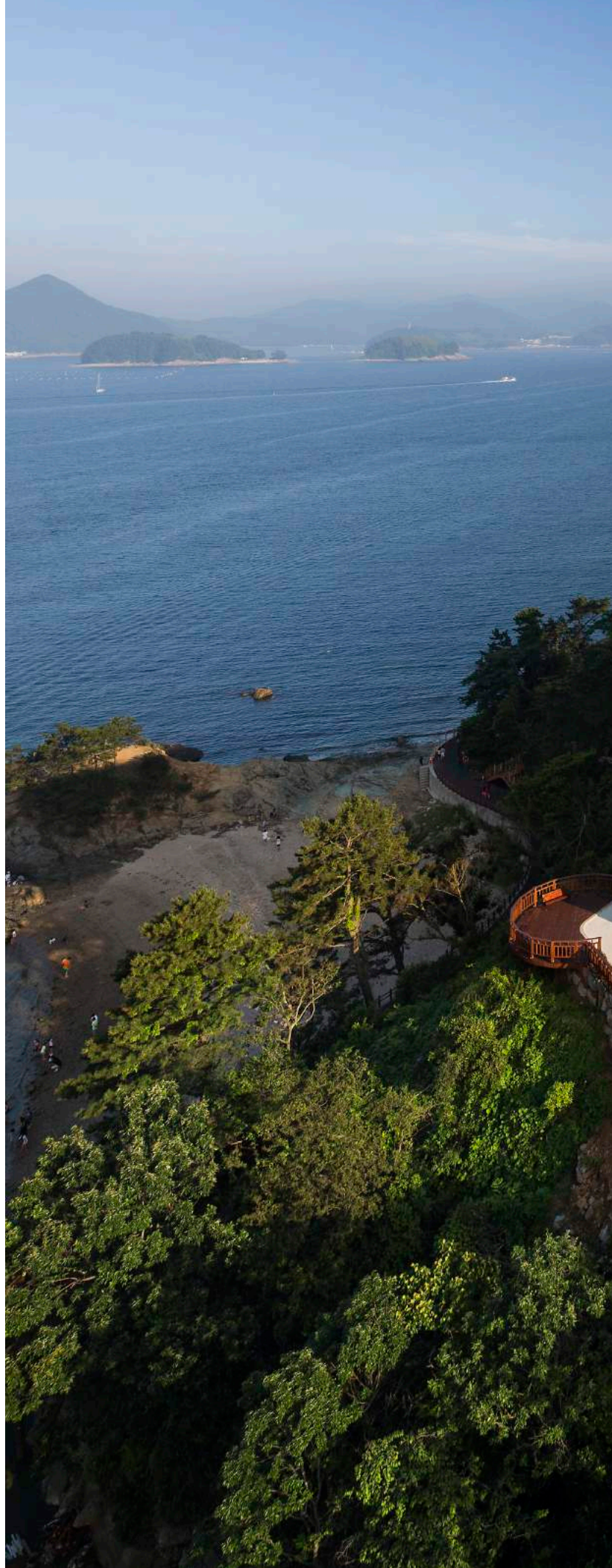


설계자 | 홍석기 |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기획력, 분석력 그리고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프로젝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잠실 갤러리아팰리스(2000), 제주 Casa Del Aqua(ICC 앵커호텔 & 리조트)(2008), 알펜시아리조트(2008), 광주과학기술원 학제융합연구동 및 기숙사(2009), 문경 리조트(2009), 두산 베어스파크(2012) 등이 있으며, 공연시설 전문가로 통영 국제음악당(2011)과 부평아트센터(2008)를 담당했다.



배치도





건축주 | 통영시
감리자 | (주)동일건축
시공사 | 대림산업(주)

대지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1번지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3,05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752.88㎡
연면적(Gross Floor Area) | 14,618.8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3.45%
용적률(Floor Area Ratio) | 44.22%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T0.7징크패널, T24로이투명복층유리,
T30화강석(포천석 버너마감), 스플릿치장블록
- 내부 : 화강석, 수성페인트, 석고보드
우드플로링, 우드+MDF+인테리어필름마감 등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1~2011. 05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6~2013. 07

사진(Photographer) | Archframe

- 설계팀 : 홍성천, 김지수, 이승한, 마정인, 허상범, 이상욱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CH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목원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전기설계 협인
 - 소방분야 : 남도TEC
 - 토목분야 : 오주엔지니어링
 - 인테리어 : 리스피앤씨

Client : Tongyeong City

Architect : Lee, Gwang Man / Oh, Dong Hee / Hong, Suk Ki

Project Team : Hong, Sung Cheun / Kim, Ji Su / Lee, Seung Han /
Ma, Jung In / Heo, Sang Beom / Lee, Sang Ouk

General Contractor :

Location : 1, Donam-dong, Tongyeong-si,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SRC

Structural Engineer : CH Engineering

HVAC Engineer : Mokwo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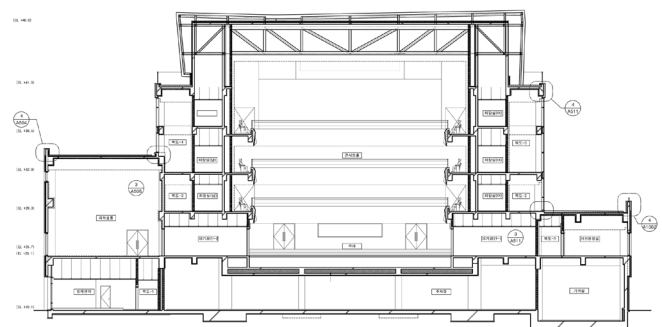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Electrical Consultant Hyeob-In

Fin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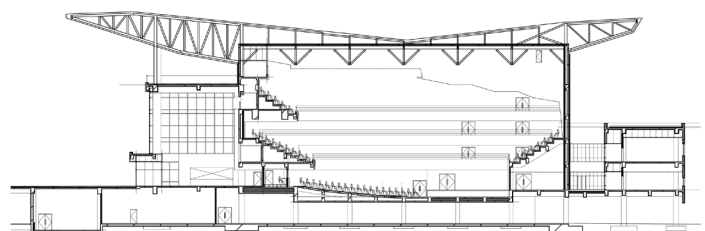
Exterior : T0.7 Zinc Panel, T24 Double Low-E Glass,
T30 Granite(Burner Finishing), Split Block

Interior : Granite, Paint, Gypsum Board

Wood Flooring, Wood+MDF+Interior Film Finishing .etc



단면도 1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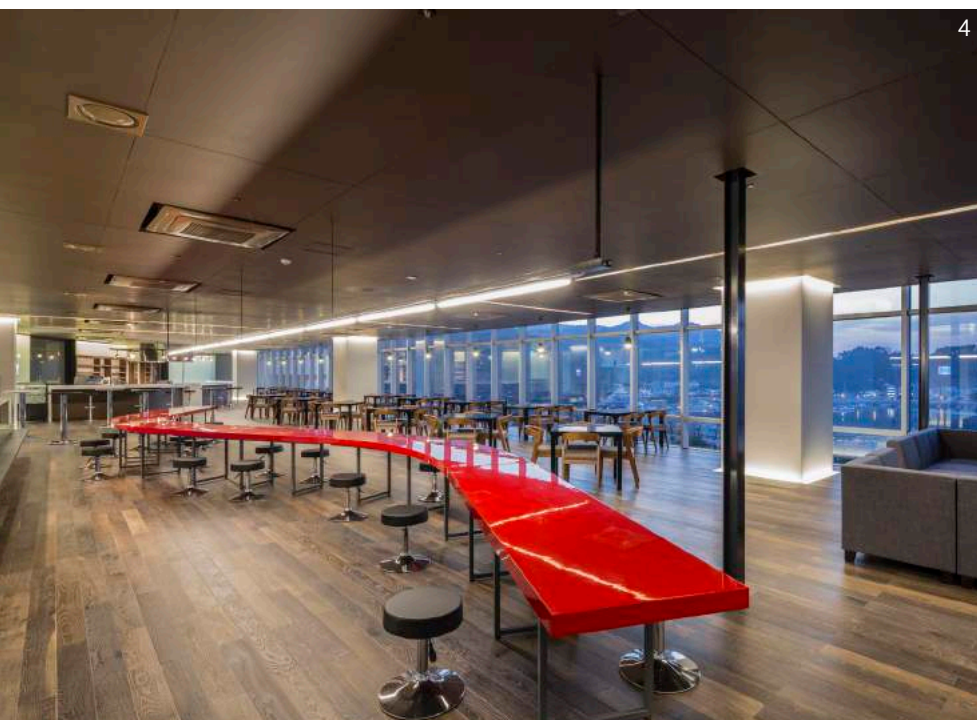


1_ 데크 2_ 북서측조감 3_ 콘서트홀 4_ 카페테리아 5_ 블랙박스 공연장

통영국제음악당은 남해안 문화예술의 메카인 통영시에 들어서며 통영시의 시조인 갈매기를 모티브로 한 외관을 자랑한다. '한려수도의 상징' 통영 앞바다를 배경으로 갈매기 두마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독특한 모습으로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아시아 대표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국제음악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지방 문화소외감 해소 및 지역 문화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 도남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당은 3만3,058㎡ 대지 위에 연면적 1만 4,618㎡, 지상 5층 규모로 통영국제음악제라는 세계적인 음악축제의 핵심시설인 만큼 어쿠스틱 사운드를 중심으로 하는 1,300석의 클래식 콘서트홀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300석 규모의 블랙박스 공연장으로 구성되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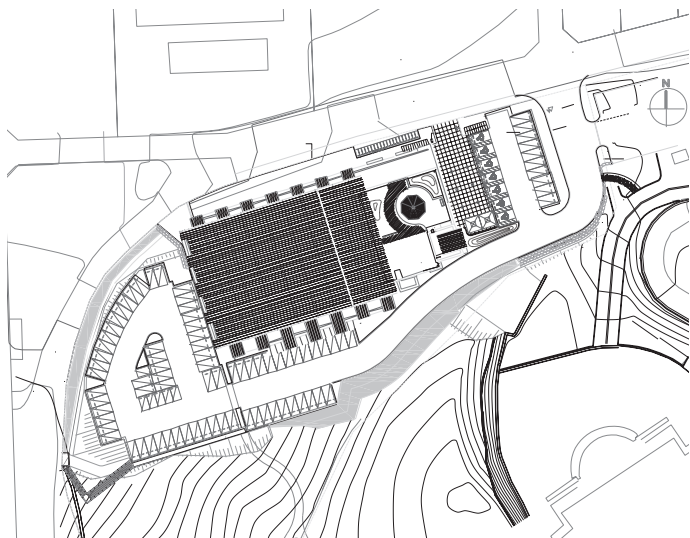
Guri-City
Multi-Sports Center



설계자 · 조영수_KIRA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설계관련 다수의 당선 및 입선 경험과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건설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 대한민국 건설기술상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다수의 설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작품으로는 구리행정복지센터, 의성국민체육센터, 당진시립박물관, 하남덕풍근린공원주차장, 세류동도서관 등이 있다.



배치도





건축주 | 구리시

감리자 |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드림월드종합건설(주), 신안

대지위치 | 구리시 교문동 153-1번지 일원 (교문근린공원 내)

주요용도 | 운동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0,692㎡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31.42㎡

연면적(Gross Floor Area) | 7,975.9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00%

용적률(Floor Area Ratio) | 41.29%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근철골 콘크리트, 철골조

주요마감재 | 아연도금칼라강판, 화강석버너마감,

STS유공판넬, THK24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7 ~ 2011.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1 ~ 2014. 02

사진(Photographer) | 이승진 (Lee, Seung-jin)

- 설계팀 : 박원섭, 이길수, 최홍열, 전성용, 전재만, 토마스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가람구조 기술사사무소
 - 기계·전기설비분야 :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토목·조경분야 :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Client | Guri-City

Architect | Cho, Young-Soo

Project team | W.S. Park, K.S. Lee, H.R. Choi, S.Y. Jeon, J.M. Jeon, T. Drgas

General Contractor | Dream World, Shin-An

Location | 153-1, Gyeomundong, Guri-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S.R.C Structure, Steel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Garam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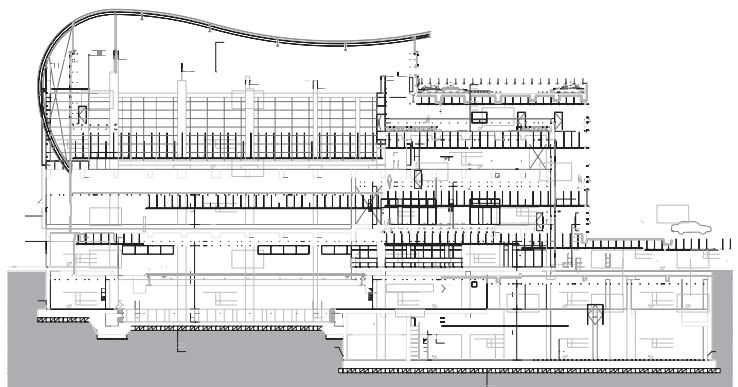
HVAC Engineer | Kyong-Ho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Kyong-Ho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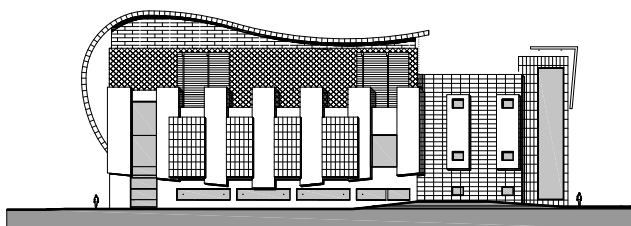
Fire Engineer | Kyong-Ho Engineering

Utilities | Kyong-Ho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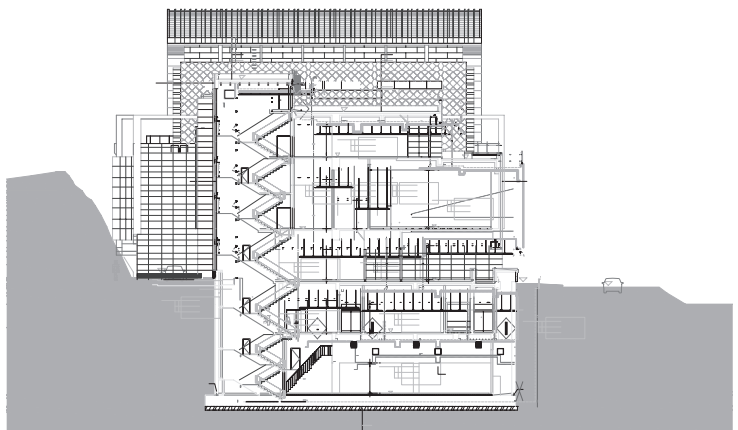
Finishing | Steel Sheet, Granite



단면도1



입면도



단면도2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란 슬로건을 토대로 고구려의 자랑이었던 개마무사(철갑기병)를 모티브로 삼았다. 구리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개마무사의 용맹과 기개에 비유한 이 체육관은 개마무사가 타고 다녔던 개마가 되고자 계획하였다. 개마는 철갑옷을 입은 말로, 철갑옷을 구성하는 마면갑, 마갑, 마구를 모티브로 형태적 단순화를 통해 매스를 계획하고, 고구려 갑옷의 특징인 ‘이어붙이는 편철’을 표현하고자 아연도컬러강판 인터락킹이음으로 마감하였다.

대상지는 교문근린공원 내 북측에 위치하는 산지로 북측·서측에 형성되었던 옹벽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의 접근이 어려웠으며, 남측·동측의 기존 체육관과 경사지를 통한 부분적 접근만 가능하였다. 이에 이번 설계에서 대지레벨을 재정리하여 기존 체육관과의 연계성을 개선하고 인근지역에서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한편, 협소하였던 인접도로의 기능과 경관을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옹벽은 산석옹벽을 계획하여 주변에서의 경관을 확보하였다.

전면부 진입을 고려하여 오픈스페이스인 진입공간과 휴게공간을 계획하였고, 비상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차장은 체육관 후면에 계획하여 보차환경을 분리하는 한편, 후면부 주차장과 인접지의 접근을 고려하여 부출입구를 계획하였다.

구리시민이 염원하던 최신식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주변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한 상징적 건축물로서, 구리시 생활체육의 메카로서 구리시민에게 사랑받는 체육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시스템R&D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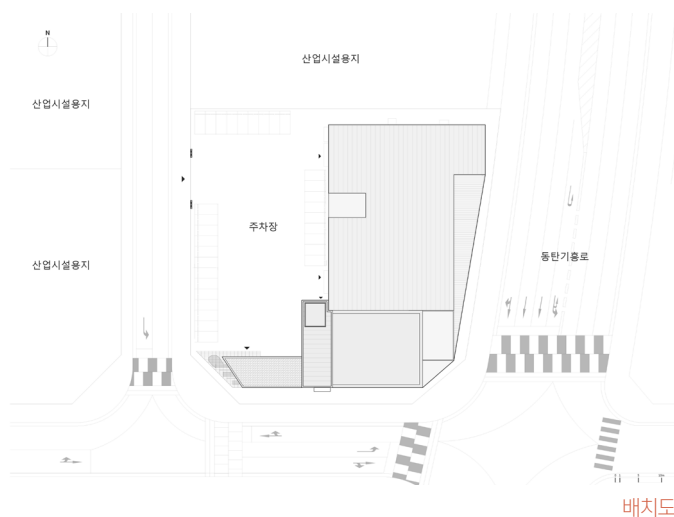
SYSTEM R&D
FACTORY + OFFICE BUILDING



설계자 ■ 이병철 KIRA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1965년 서울생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청담동 스포츠빌딩, 소양강댐 물문화관, 경북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학생기숙사, 용인아르피아, 포은아트홀, 용연문, 경인 아라뱃길 통합센터&여객터미널, 일산 정수장관리센터, 천안 한들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경기도 건축문화상과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건축주 | (주)시스템R&D
감리자 |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QS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9길 23-6

주용도 | 공장·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902.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945.62㎡

연면적(Gross Floor Area) | 5,928.3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86%

용적률(Floor Area Ratio) | 149.39%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우레탄패널, 커튼월, 알루미늄시트
- 내부 : 화강석, 인조대리석, 목재패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4. 01. 09. ~ 2014. 05. 1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5. 19. ~ 2014. 11. 20

사진(Photographer) | 강승진 (Kang, Sueng Jin)

· 설계팀 : 이영수, 김인곤, 김희동, 박경수, 김광숙, 류지완, 이관호,
강승훈, 정다혜, 김병국, 장지원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승 구조
- 기계설비분야 : 청우 ENC
- 전기분야 : 유원 ENC
- 소방분야 : 태멘 ENC

Client | SYSTEM R&D.,Ltd

Architect | Lee, Byung Chul

Project team | Kim, In Gon / Kim, Hee Dong / Park, Kyoung Su /
Kim, Kwang Suk / Ryu, Ji Wan / Lee, Kwan Ho /
Kang, Sueng Hoon / Joeng, Da Hye / Kim, Byung Guk /
Jang, Ji Won

Location | 23-6, Dongtansandan 9-gil, Dong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S.C, R.C, S.R.C

Structure Engineer | Sueng Structural CO.,Ltd

HVAC Engineer | CHUNGWOO ENC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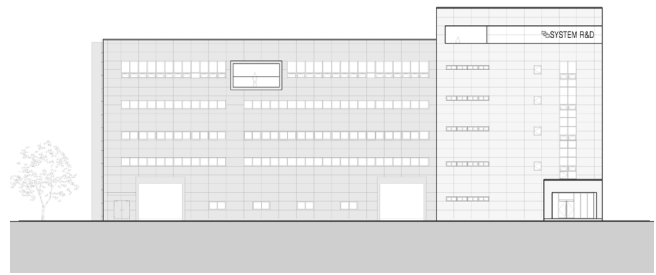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EUWON ENC CO.,Ltd

Fire Engineer | TEAMAN ENC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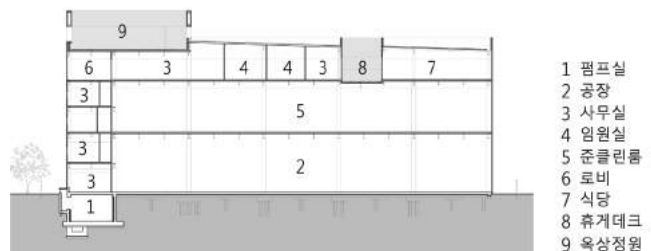
Finishing | YOUNGGWANG E&I engineering

Exterior : Urethane panel, Curtain wall, Aluminum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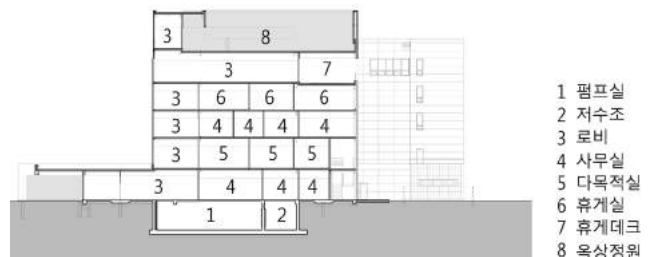
Interior : Granite stone, Scagliola, Wood Panel



동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1 펌프실
- 2 공장
- 3 사무실
- 4 임원실
- 5 준클린룸
- 6 로비
- 7 식당
- 8 휴게데크
- 9 옥상정원

- 1 펌프실
- 2 저수조
- 3 로비
- 4 사무실
- 5 다목적실
- 6 휴게실
- 7 휴게데크
- 8 옥상정원





2

1_5층 복도1 2_1층 공장 3_5층 복도2 4_계단실 5_5층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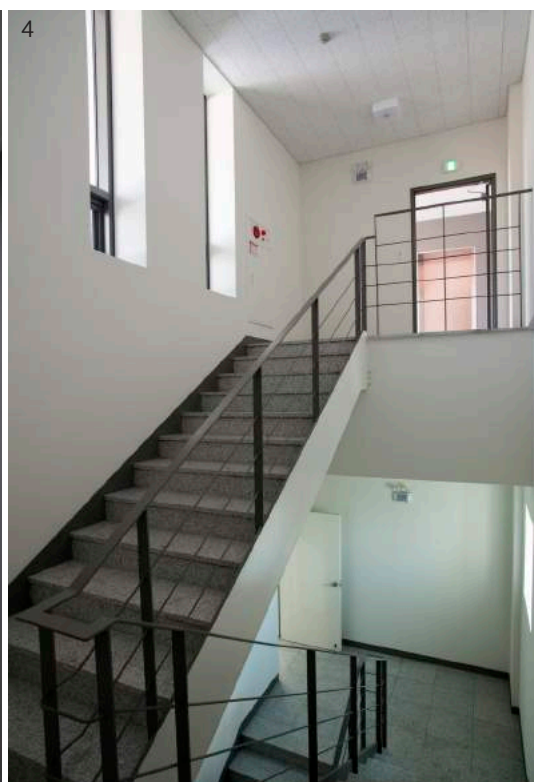
LCD 관련 설비제조회사인 시스템알앤디(SYSTEM R&D)의 사옥 및 공장은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인지도가 높은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다. 공장과 사옥이 요구하는 규모와 주차영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옥과 공장을 한 건물로 계획하였다. 이 건물은 1층에서 4층을 이용하는 생산영역과 5층의 사무관리 영역으로 구분된다. 생산영역과 사무관리 영역은 각각 다른 수직동선 계획으로 분리하여 생산 효율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1층과 3층은 각각 공장과 준클린룸이 위치해 한정된 대지를 밀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5층은 전면유리로 개방된 사무실과 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외부데크는 영역구분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관리자와 외부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 남측은 1층 진입부 조경과 전이공간, 5층 외부데크, 옥상정원을 둬으로써 건물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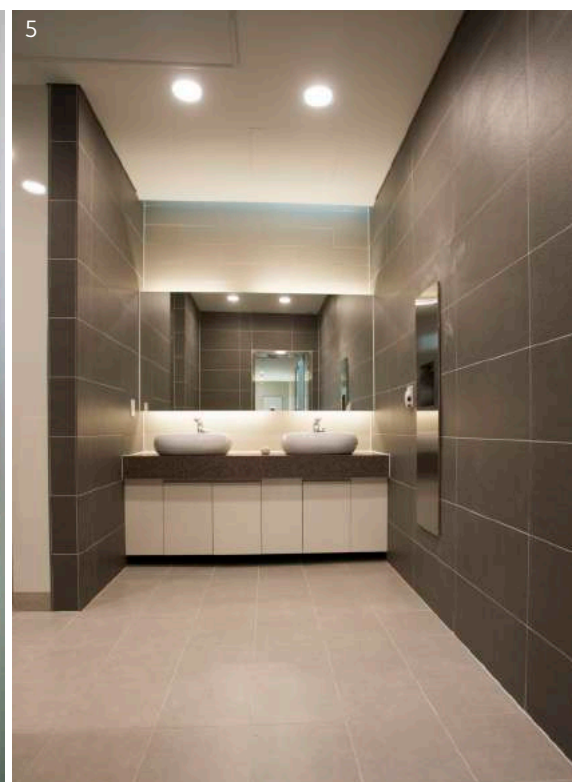
주된 마감재료는 두 가지 색상의 우레탄패널을 사용, 건물의 각각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인에 해당하는 사무 및 공용공간은 진한 색상의 우레탄 패널로, 생산시설은 밝은 색 우레탄패널로 마감되어있다. 공장에서 종사하는 직원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들이 소통의 장소가 되어 꾸준히 변화하는 시스템알앤디의 도약에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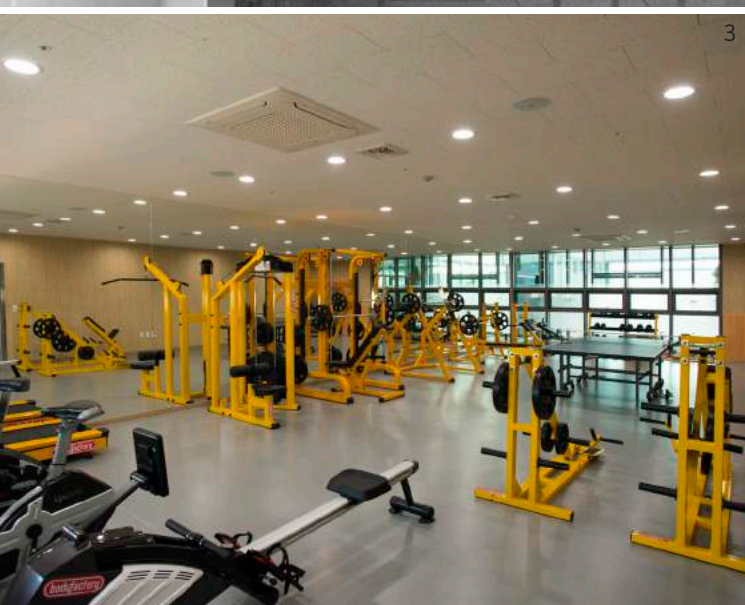
4



5



1. 5층 휴게데크
2. 5층 로비
3. 5층 체력단련장
4. 5층 식당
5. 외관1
6. 외관2





5

6



안단테 칸타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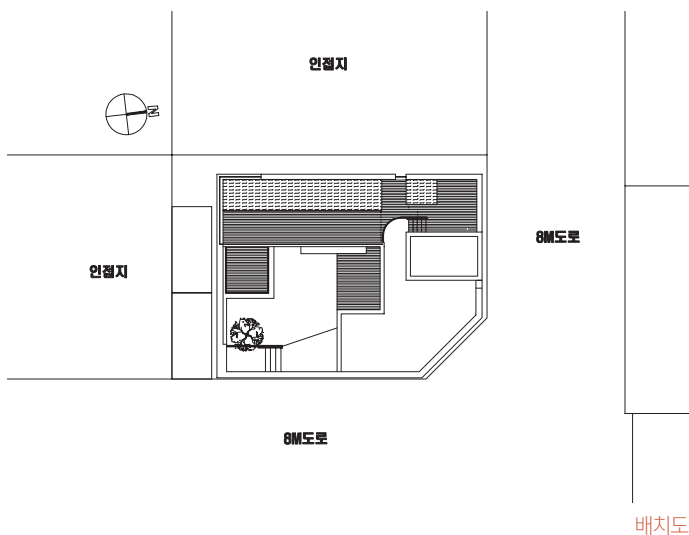
Andate
Cantabile



설계자 | 정승이 KIRA

유한 건축사사무소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유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한국토지공사 '아름다운 우리집' 우수상, 인천건축상, 파주건축상을 수상하였고, 주요작품으로는 일산·교하·상동·판교주택 다수, 화정어린이도서관, 스타타워 등이 있다. 저서로는 그동안의 주택 경험을 토대로 한 『살기편한 주거공간 U-HAUS』, 『스토리가 있는 상가주택』 등이 있다.





건축주 | 개인
시공사 | 유한건축 유하우스

대지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 용 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231.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3.2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05.6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00%

용적률(Floor Area Ratio) | 88.95%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라임스톤, 알루미늄 메가판넬, 스테코

- 내부 : 온돌마루, 실크벽지

우드플로링, 우드+MDF+인테리어필름마감 등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4 ~ 2013.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10 ~ 2014. 04

사진(Photographer) | 변종석 (Byeon, Jong seok)

· 설계팀 : 김규선, 고하동

· 전문기술협력

- 전기, 기계설비분야: 세원엔지니어링

Client | Individual

Architect | Chung, Seung Yi

Project team | Kim, Gyu Seon / Go, Ha Dong

General Contractor | Jungmi Conteractor

Location | Unjung-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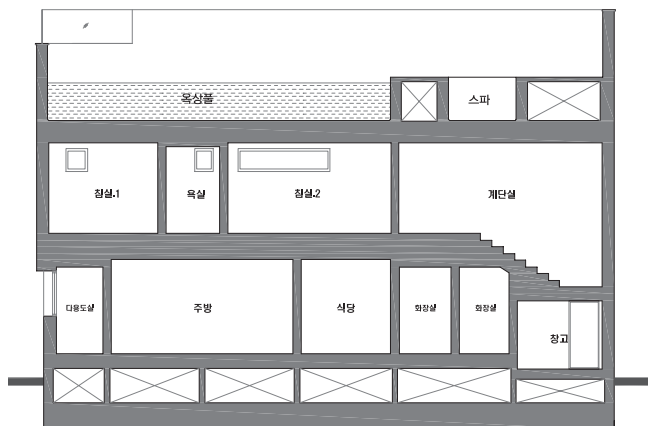
Structure | RC

Electrical and Machanical Engineer | Sewon Engineering

Finishing | YOUNGGWANG E&I engineering

Exterior : Lime stone, Stucco, Aluminum mega panel

Interior : Ondol floor, Silk wallpaper



단면도





4

1_ 옥상 풀 데크 자쿠지 2_ 옥탑 하늘마당 캠핑 공간 3_ 마당 현관 4_ 1층 거실

· 대지 조건

판교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택지지구의 초입 코너땅으로 인접 주택, 초등학교, 아파트 등으로부터 시선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외부로는 닫히고 안으로 완전히 열린,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에워싸기가 이루어진다. 또한 0.6M의 완만한 경사는 1층의 높이를 소폭 상승하게 하여 도로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는 요소가 되었다. 대지 남측의 인접지와 면한 부분에 판교 택지만의 특징인 폭 2.5m의 공유부지가 설정되었으며, 이 공유부지에는 건축이 제한되고 주차 및 조경공간으로 사용된다.

· 건축주의 요구와 설계 방향

건축주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보다 가족이 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원했다. '편안한 집'과 '여가 공간'은 주된 설계 키워드가 되었다.

가변적 벽체 - 가변적인 벽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방감을 동시에 보장하며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주택만의 독특한 요소이다. 계절에 따라, 혹은 그날의 기분 따라 여달을 수 있는 가변적인 벽체는 실용적이면서도 편안한 공간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

소통의 핵 안마당 - 벽면에 둘러싸여 대지 중앙에 위치한 안마당은 머리 위로 열린 하늘 모습을 담아내는 비움이자 채움의 공간이 된다. 1층 공간들은 외부로 창을 최소화하여 온전히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면서도, 내부로는 마당 측으로 전면 창을 내어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며 자연을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주방과 식당은 거실과 ㄱ자형으로 배치하고 단 차이를 두어 서로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 공간으로 연출했다.

주방과 세탁실 - 주방은 건축주가 꿈은 가장 편안하고 실용적인 공간이다. 수납공간이 많고 요리를 즐기는 건축주 부부가 자녀와 함께 요리를 하며 추억을 쌓고 있다. 2층의 안방과 연결된 세탁실은 보기 드문 공간 구성이다. 대부분의 세탁물이 1층이 아닌 2층의 개인실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굳이 세탁물을 들고 오르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여가 공간 - 옥상은 '하늘과 맞닿은 가족 친화 공간'을 컨셉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폭 1.8m, 길이 10m의 수영 풀과 2x2m 규모의 스파가만 들어졌다. 이 공간에서 지난 여름 가족들은 야간 수영을 즐기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 풀(pool) 건너편으로는 바비큐 파티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계단탑 일부에 싱크공간을 매립하여 취사가 가능하게 하였다. 워낙 캠핑을 좋아하는 가족은 지난해만큼은 외부로 캠핑을 거의 떠나지 않고 옥상 공간을 톡톡히 활용했다고 한다. 부부는 지인들을 초대하여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했다.

· 입면과 내외장 마감재

주 외장재인 회색의 라임스톤과 음각부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스테이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입면은 단순해보이면서도 감각적인 형태로 디자인했다. 입면은 주택 외부를 덮는 두 마감 재료인 라임스톤과 스테이크를 교차하며 켜켜이 쌓아가는 방식이며, 다소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오픈하여 채움과 비움이 조화를 이루는 입면이 완성되었다. 외부에 면하는 창문을 최대한 줄이고 안마당을 향해 열리는 평면 배치로 개성 있는 입면과 조형이 계획되었다.



1



2



3

1. 마당 데크
2. 마당 현관 전면창
3. 마당에서 올라다 본 전경
4. 외관
5. 1층 복도
6. 1층 주방
7. 1층 서재
8. 2층 침실
9. 2층 취미실



4



5



6



7



8



9

물의 칼 - 진도전망대

The Sword of Water-Jindo Tower





2



3

-
- 1. 남동측 전경
 - 2. 전망대와 조형물
 - 3. 진도전망대와 울돌목전경



설계자 | 박동준_KIRA I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전남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의 공간건축에서 실무를 익혔다. 1996년 사무실을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계획심의위원,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명골 전망대, 무안백련지 수상유리온실(200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장덕고등학교(2009년 우수시설횡교 우수상), 사직공공예술프로젝트-흔적(2012년 광주시건축상 은상) 등이 있다.

건축주 | 진도군청

감리자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금아건설(주)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만금길 112-41

주요용도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대지면적(Site Area) | 12,321㎡

건축면적(Building Area) | 887.8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323.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2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19%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티타늄아연판패널, FBD패널, 미러스테인리스, 컬러로이복층유리

- 내부 : 친환경수성페인트, 인조대리석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6. 25 ~ 2010. 12. 2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12. 20 ~ 2013. 12. 06

· 설계팀 : 김용준, 정재원, 장지훈, 마재열, 정재훈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토탈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새터-이엔지

- 전기분야 : (주)좋은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주)좋은엔지니어링

Client | Jindo County Office

Architect | Park, Dong Joon

Project team | Kim, Yong Jun / Chung, Jae Won / Jang, Ji Hoon /

Ma, Jae Yeol / Jeong, Jae Hoon

General Contractor |

Location | Mangeumgil 112-41, Gunnae-myon, Jeollanam-do, Korea

Structure | RC, Steel Frame

Structure Engineer | Total Structure

HVAC Engineer | New-Place MEC

Electrical Engineer | Good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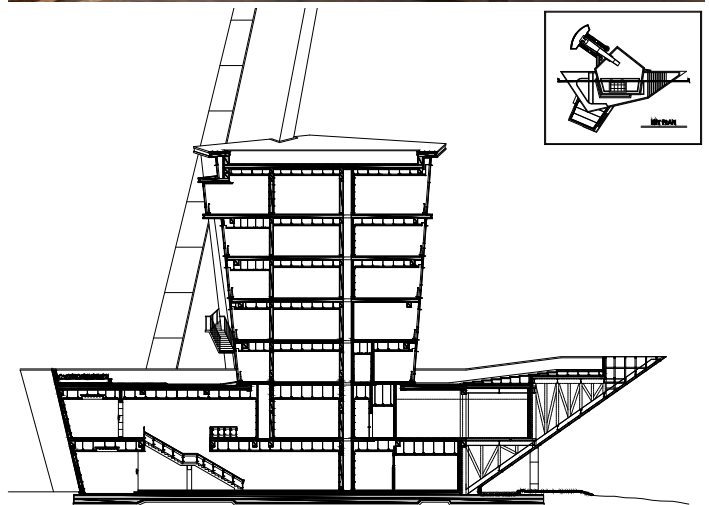
Fire Engineer | Good Engineering

Finish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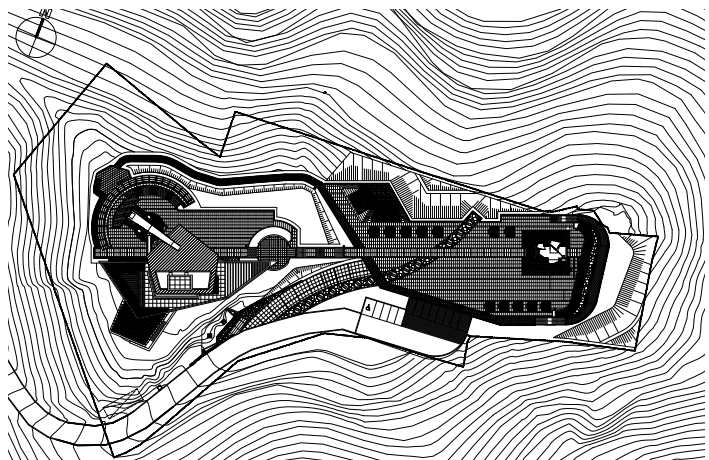
Exterior : Titanium Zink Panel, FBD Panel, Mirror Stainless Steel,

Low-E Pair Glass

Interior : Eco-friendly Paints, Artificial Marble concrete



종단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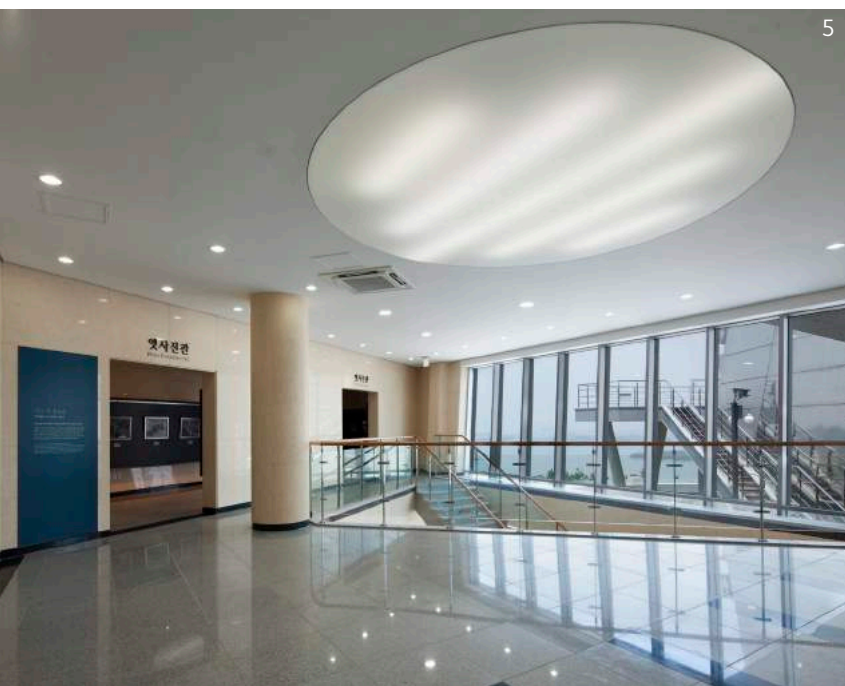
4

1_ 칼구조물 전경 2_ 칼구조물과 전망브릿지 3_ 휴게캐토피 4_ 전시관 5_ 전시홀 6_ 전망대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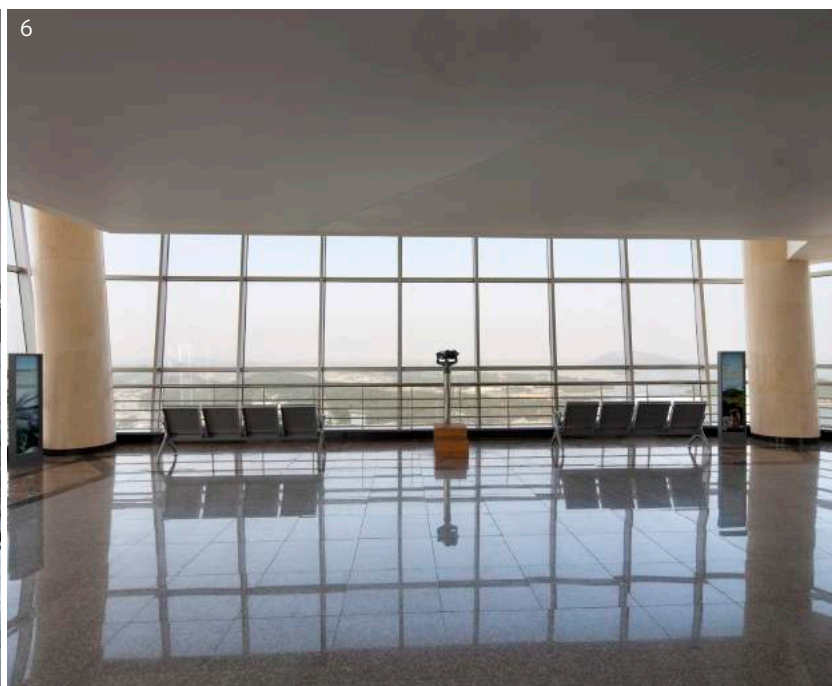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호국 역사의 혼이 서린 울돌목 인근 녹진 관광지에 조성된 명량대첩 승전광장 및 전망대로 명량대첩의 흔적을 간직한 현장에 역사와 문화를 담는다는 목표로 세워졌다. 오늘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여러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주요콘텐츠이고, 이미 여러 장소에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기에 울돌목이라는 역사적 장소에 세워지는 전망대는 차별성을 가진 명확한 콘셉트가 중요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강인한 이미지와 강한 조류와 암초로 이루어진 울돌목의 자연환경 및 소설 '갈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물의 칼"이라는 콘셉트로 전망대와 광장을 계획하였다.

전망대의 조형성은 울돌목의 암초와 그 속에 솟아난 칼을 형상화한 것이다. 역사적 장소에 어울리는 콘셉트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별처럼 빛나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혼과 명량대첩의 승전사를 강하게 인식시켜 줄 것이다. 또 바다로 열린 여러 전망대는 미래를 향한 진도군의 힘찬 항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다.

명량대첩 기념광장은 진도와 해남사이를 흐르는 울돌목과 그곳을 지켜보는 망금산의 장소성, 그리고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격파한 명량대첩의 역사성을 재현했다. 물결의 흐름을 나타낸 패턴 디자인, 13척의 배를 상징한 기념비와 상징조형물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도시,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상생의 중심지로서 진도의 의지를 나타내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5



6







홈앤쇼핑 신사옥

Home&Shopping HQ Building



발주자 : (주)홈&쇼핑

설계자 : 박도권 KIRA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유승호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백승철, 선주용, 김정수, 김대순, 권보민, 서태경, 조현우

건축주 : (주)홈&쇼핑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14 일원, 내발산동 309-1 일원

주요용도 : 방송 및 업무시설

대지면적 5,516㎡

건축면적 3,256.00㎡

연 면 적 51,284.40㎡

건 폐 율 59.39%

용 적 률 507.5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5층~지상11층

마 감 복층유리, 메탈 패널, 알루미늄 루버, LED

‘Gift Box(선물상자)’라는 컨셉으로 디자인된 본사 사옥은 작고 큰 박스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하늘로 뻗어나가는 상승감을 모티브로 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홈&쇼핑의 기업이념인 ‘함께 크는 쇼핑’을 드러내고자 했다. 다양한 볼륨을 가진 박스들을 단단한 프레임으로 둘러싸고 연결해주는 디자인은 고객의 만족과 상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신뢰성을 의미하며, 선물상자를 열어볼 때의 두근거리는 설렘과 좋은 느낌을 시설 이용자와 도시민에게 표현하고자 했다.

건물 중심부에 크고 작은 다양한 박스로 표현된 컨셉은 용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촬영 스튜디오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피에 설치되는 LED를 통해 밤에는 주변을 밝히고 소통하는 디지털 캔버스로 변신한다.

사옥 저층부는 지하철과 연계된 로비를 중심으로 시민과 고객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했다.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오픈 스튜디오와 거리에서 관람이 가능한 전시영역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루 200팀 이상의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생방송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간 최적의 조닝과 지원시설의 근접배치로 최단거리 동선을 갖추도록 계획했다. 나아가 스태프들의 활력을 충전하며 임직원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Dream Lounge’라는 공간개념을 연출했다.

상층부에 마련된 업무공간은 임직원의 창의성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오픈플랜을 중심으로 중앙부에 자연을 옮겨 놓은 ‘Refresh Zone’을 계획하고, 2개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둬으로써 소통과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최상층에 위치하는 식당과 하늘을 담은 스카이 가든은 도시경관을 바라보며 식사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4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강당을 두었다.

LANDMARK

도시의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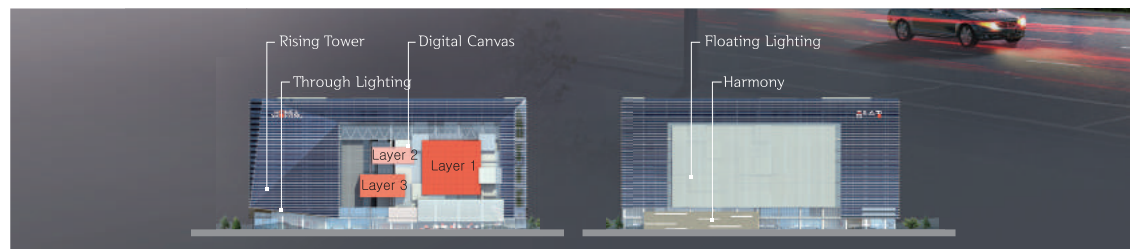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홈&쇼핑, 작고 큰 BOX의 디자인은 홈&쇼핑의 새로운 상징이 된다.
견고한 수평 루버와 박스들을 감싸는 투명함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신뢰와 기업의 투명성을 드러낸다.



DIGITAL CANVAS

소통의 창

빛으로 그리는 디지털캔버스는 아트메세지, 이벤트, 인포메이션을 통해 고객과 소통한다.
실시간으로 홈쇼핑 제품을 방송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상승시키고 디자인의 가능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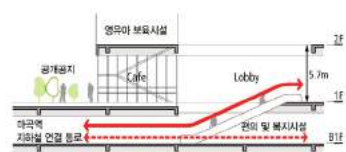


SME'S PROSPE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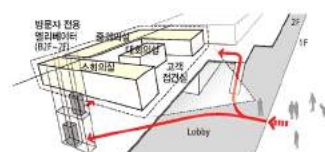
상생공간

시민에게 열린 광장,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협력공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저층부 공간은 협력사와 상생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홈&쇼핑의 경영이념이 반영된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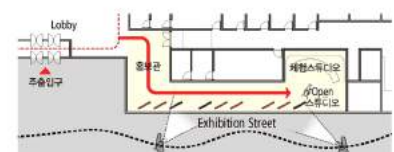
지하철 및 공개공지와 연계된 로비



로비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고객접점실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관 및 체험스튜디오



1_ 홈쇼핑 사옥 내부 2_ 사색마당 (집중업무공간) 3_ 아이디어라운지 (휴게공간)



글. 김재환_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산지전용허가기준인 평균경사도의 산출방법

Calculating method in average gradient, a permission standard of usage change in mountainous area

산지(山地)란 원칙적으로 ①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및 ④ 앞의 토지들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⑤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산지관리법은 이러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산지관리법 제1조)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 하는데(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산지관리법 제3조), 산지전용신고 대상(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외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대목 세부기준 1)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는 원칙적으로 산지의 형태 및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되는 것이다)을 요구하고 있고(다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7항에서

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에 관한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 이하 ‘산림청 고시’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서는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고, 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 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 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되거나 일시 사용되었지만 그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물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참조).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5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허가받거나 신

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은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및 위에서 본 산지전용허가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에서는 “기존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택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여서 곧바로 산지전용허가까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것이 불법적인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수치지형도보다는 현실을 우선하여 평균경사도를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위 규정은, 예컨대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건축은 불가능해지게 되어 건축을 전제로 한 산지전용허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산지전용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유추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참조).

따라서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주택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결과 해당 토지는 복구가 예정됨으로써 그 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경사도 측정은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따라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serial

글. 김수경_ Kim Su-geoung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이란 기행

Iran Travel

미지의 나라, 이란

여행에 대한 설렘은 말해 무엇하랴!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 누구나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는 곳, 우리에게는 오지보다 더한 오지의 나라로 여겨지는 이란, 이곳을 다녀오게 되었다. 이란이 페르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1935년 페르시아는 국호를 '아리아인의 나라' 라는 뜻을 지닌 이란으로 개칭하였고, 1979년 반정부 이슬람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가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핵무기개발로 인해 미국, 이스라엘 등과 국제사회 갈등을 빚고 있고, 이 이유로 고립 아닌 고립으로 현 세기를 견디고 있는 나라다. 친미인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이곳을 용감한 교수 한 분과 유적탐사로 몇 번 오간 적이 있는 박물관 팀장이 주축이 되어 답사팀을 꾸렸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나는 초등학생 두 아이와 긴 여정을 준비했다. 주변 지인들과 어른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 위험한 곳을 가느냐고 말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나 또한, 선배의 전화에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지막 날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짐을 꾸렸다.

이란...우리가 이란에 대해 얻은 정보는 주로 TV속 영상의 이미지다. TV에 나오는 이슬람국가의 이미지는 한결같다. 전쟁과 폭력, 여성 인권유린...등등. 그러나 옛 페르시아, 역사 서적속에서만 존재하던 나

라의 유적을 본다니, 얼마나 신기하고 두근거리는 일인가? 모든 걱정은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고 싶다는 열망으로 다 덮고 과감히 비행기에 올랐다. 일단 카타르 도하까지 13시간 비행, 다시 테헤란으로 2시간, 연착시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16시간여 만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큐빅디자인연구소에서 잠깐 인테리어를 접한 후, 그 후로는 (주)광장건축과 (주)아키텍플랜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건축사를 취득한 후, 1년여 간 런던에 머물면서 유럽을 여행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재 목차

여행길 : 인천공항 - 도하 - 테헤란 - 야즈드 - 쉬라즈 - 이스파한 - 마티드바드 - 테헤란 - 도하 - 인천공항

1.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다(1)

(테헤란,야즈드,쉬라즈)

2.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다(2)

(이스파한, 마티드바드, 테헤란, 도하)

1.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다.(1)

Day 1 : 낮선 나라, 낮선 도시 - 테헤란

(이란 유리 도자기 박물관, 국립 카펫 박물관, 아지디 탐)

16시간 전, 밤 12시 넘어 인천 공항을 출발, 다음 날 현지 시각 오전 11시,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 이름인 테헤란의 거리를 달리고 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본 도시의 풍경은, 간판의 아랍어 글씨와 곳곳에서 보이는 호메이니의 프린트된 얼굴, 여자들이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검은 색의 차도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국적이다. 거리의 간판에 자주 보이는 삼성과 엘지 전자의 가게들을 보면, 누구나 낮선 나라에서 그렇듯 반가움에, 자랑스러움에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걸 감출 수는 없다. 간간히 버스가 멈추면 대부분 버스안의 이국적인 얼굴들에 호기심어린 표정과 미소를 띄우며 아는 체 하고 싶어 하는 안달하는 듯한 그들을 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의 이미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소박한 시골사람을 만난 듯, 친숙한 기분이 든다. 건축으로 본 도시는 무채색의 아무 표정도 없는 콘크리트의 회색도시 느낌, 그리고 우리나라 80년대 서울을 연상시키는 매연과 낡은 자동차무리들, 화려하고 바쁜 서울과 비교하면, 잠깐 시간여행 온 거 같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역사적 유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토기, 도자기류이다. 우리도 먼저 도자기 박물관으로 향했다. 여자들은 모두 각자 가지고 온 스카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서.

유리 도자기 박물관은 셀주크 시대인 19세기 아호마드 콰반의 개인저택을 개조하여 1976년 부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리도자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리 도자기

1998년 국가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이란양식과 19세기의 유럽양식의 조합이 인상적인 곳이다. 특히 1층에서 2층으로 향하는 러시아 양식의 나무 계단은 크지 않은 공간의 중앙에 볼륨있게 자리하고 있어서 유럽양식과 다르고, 그렇다고 동양적인 느낌이 아닌 형태를 보여주었다. 내부에 전시된 유리 도자기의 세밀함과 화려함은 긴 역사의 유물답게 다양성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리가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이곳에 와서 꽃피운 듯하다. 역대 강한 왕조의 부를 실감하게 하는 유리 공예작품들이다. 다음으로 이동한 국립 카펫 박물관(1976년)은 18세기부터 이란과 페르시아의 다양한 카펫을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외관은 카펫 직물의 형태를 형상화하고 있고, 태양에 의한 내부 직사광선을 줄이기 위해 외부 벽에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다. 건물외관은 근대건축



유리도자기 박물관 중앙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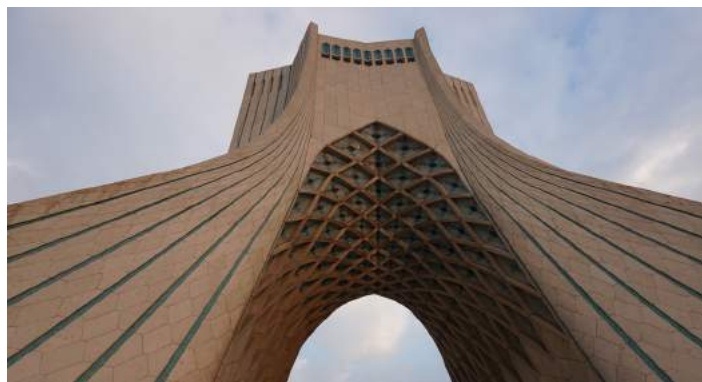


카펫 박물관



카펫 박물관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카펫

의 영향을 다소 받은 느낌이다. 페르시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카펫의 나라, 동화 속 날으는 용단의 나라이다. 이를 증명하듯 그 크기와 화려함, 다양성, 그리고 하나의 카펫에 담은 신화, 성경, 이야기에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물의 위대함이 어디까지인지 새삼 감탄을 했다. 한 줄 한 줄 엮는 직조기술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지고 꽃이 만들어 지는지. 카펫 어디에 살짝 기대면 두건을 쓴 페르시아 왕자와 어디로든 떠날 것 같은 기분을 뒤로 하고, 메흐라바 공항 근처 아자디 광장으로 향했다. 아자디 탑(Borje Azadi)은 1971년 페르시아 제국 25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탑으로 에스파한에서 가져온 8000여개의 석판을 이용해 45m 높이로 제작된 기념물이다. 어디에도 없을 듯한 이 기념비적인 탑은 이란건축사의 작품답게, 페르시아 전통건축의 문양이 내부형태에 고스란히 남겨져 보였다. 크고 장대함에 눈이 번쩍하기도 했지만, 탑 아래 서서 위를 쳐다보니, 돌로 만든 화려한 디테일에 장인일지, 노동자일지 모르는 사람들의 손길과 숨결의 수고로움에 경이로움이 절로 표해졌다.



아자디 탑

Day 2 : 고상한 도시, 야즈드

(Jame사원, 불의 사원, 침묵의 탑, 고대석빙고, 4,500년 된 나무)

저녁을 먹고 비행기로 두어 시간을 가야하는 야즈드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한 길은 눈꺼풀이 무겁다 못해 발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9.5시간인 날을 한 번도 상상해 본적이 없었다. 매일 똑 같이 반복되는 하루인 24시간이, 낯선 나라, 이국의 도시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다.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희한한 통로를 지나는 기분처럼 공항의 밤공기도, 히잡을 쓴 여인들도 낯설다. 진한 화장과 현대적인 패션의 그녀들일지라도 역사의 수레를 거스릴 수 없는 듯 하나같이 히잡을 쓰고 있었는데, 머리를 제외하고 그녀들은 서양 어느 미인 못지않게 세련되고 예쁘게 보였다. 그러나 우리 일행들은 긴 시간동안 씻기는 커녕 양치질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여행이란 원래 평소에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의외성이 기다린다 치더라도 여행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떠난 티가 나는 거 같다. 그러나 어찌랴? 이것이 여행의 묘미일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 집을 떠나기 전 저녁세수라도 하고 출발할 것을. 여행이 일상의 틀을 깬다는 점에서 확실히 내 얼굴은 지각변동을 당하고 있다. 밤늦게 도착한 야즈드 공항에 비행기라고는 우리가 내린 비행기 한 대가 전부였다. 작은 도시의 공항이, 경비행기에 가까운 우리가 탔던 비행기의 누추함이 새삼 이 도시를 느끼게 한다. 생애 처음 도착한 도시, 밤, 한 대의 비행기, 외국인 이라고는 우리 일행이 전부인 그 곳에서, 서구의 경제논리가 덜 적용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가지고 대기해 놓은 버스에 몸을 싣고 safaiyeh 호텔로 향했다.



safaiyeh 호텔

외관으로 보여 준 호텔은 호텔이라기보다는 규모가 작다. 4층 정도 되려나?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니 혁절로 감탄이 나온다. 나중

에 보니 종교건물을 제외한 이슬람 건물의 특색인 듯하다. 겉에서는 다소 초라해 보이나, 들어가면 화려한, 마치 검은색 차도르를 머리에로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안에 있는 옷은 말할 수 없이 화려한 것을 입는 것처럼. 분명히 외부에서 4층 정도 높이였으나, 안에 들어서니 규모의 웅장함이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이 큰 내부 볼륨감은 무엇이지? 둘러보니, 지상으로 보이는 외부 높이만큼 지하를 파서 내부의 볼륨감을 주었다. 이 나라 기후의 특성상 건물을 지을 때 지하공간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처음 보는 건축스타일에 이곳의 기후가 빚어낸 건축언어가 재미있게 다가왔다. 음식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소하다.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나 호텔음식의 기본정도는 엇비슷하여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이란의 전통음식은 야채류를 은근하게 오랫동안 익혀서 건더기가 있는 수프 같은 종류가 많아서 우리나라 시골 할머니 음식의 투박한 색깔이 생각난다. 이후 거의 모든 식당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토마토와 오이 그리고 이란의 전통 빵인 난. 다른 건 못 먹어도 이것만 있어도 배는 굶지 않겠다. 그밖에 발효 요구르트가 늘상 식탁에 놓여있지만은 특유의 시큼한 맛 탓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마시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나라에 왔으니 맛을 보리라 큰 맘 먹고 시도하고 몇 모금은 마셔보기도 했으나 역시 달콤한 한국식 요플레에 익숙한 우리들은 두 번은 시도하기를 꺼렸다.

이른 아침을 먹고 호텔을 나서니, 이란 사람들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이후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이란 곳곳에서 외국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서양 관광객도 거의 드물고, 동양인들조차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유적지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가족끼리 여행하는 이란인 또는 아랍계 사람들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동양의 아이들을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우리만큼 신기하게 여기고 사진으로나마 남기고 싶어 함이 보였다. 순박하고 따뜻한 서아시아 사람들. 이들이 보내오는 눈인사가 수줍은 듯 짓는 순진한 미소가 참 좋다.

야즈드에서 처음 간 Jame사원은 이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미나렛을 가지고 있다. Jame모스크 입구에 세워진 48m높이의 첨탑, 즉 미나렛은 페르시아 유적 특유의 푸른 타일로 장식된 정문과 조화를 이루어 14세기 이란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곳의 미나렛은 그 높이로 인하여 아직은 고층건물이 그닥 없는 야즈드 주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옛날 명동성당이 서울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개발이라는 이름의 성장은 때로는 앗아가는 것이 더 많기도 하는 듯하다.) 미나렛의 푸른 끼가 도

는 색채와 현란한 문양에 넋을 잃으며 서서히 내부로 향하니 커다란 중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건축을 계획할 때 종종 중정의 요소를 도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본 회랑으로 연결된 사면의 중정은 학교의 운동장만 했고 사람이 적었던 그곳의 정적은 웅대함에 기죽고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인간을 신 앞에 무릎 조아리게 하는 위엄마저 있었다. 종교건물이 신의 권위를 한껏 들어나게 하여 인간이 스스로 나약하고 초라하여 신을 찾게 하는 방편도 있다고 함을 부인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신의 입장에서 보면 하잘 거 없이 초라한 인간의 작품이 아닌가? 작고 작은 조각의 연결체인 수많은 타일문양들을 보면서, 인간자체로 위대한 것인지. 신이 있음으로 인간 이상을 꿈꾸었는지 아리송한 감정이 들었다.



Jame사원 미나렛



Jame사원의 중정



Jame사원 천장

우리를 가이드한 현지 가이드는 일본어에 능통했다. 스스로 아리 아인임을 자랑스러워 한 그는 5년을 일본에서 살고 한국에도 온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의 여행가이드는 굉장히 어려운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기에 이란에서도 많지 않다고 한다, 그나마 한국어가 가능한 가이드는 한명도 없고, 우리를 통솔한 가이드가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 어디를 가나 가이드의 능력과 통솔력이 여행성공의 반 이상인 법. 우리의 가이드는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켜주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이 나라는 자본주의가 정착하기 시작할 무렵인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이드 특유의 처세로 안 통하는 것이 없는 듯 보였다. 다음으로 간 불의 사원에서 그렸다. 마침 우리가 간 날은 쉬는 날이라 문이 잠겨있는데도 기어이 관람이 가능하게 하였으니까. 유럽을 여행할 때 제일 황당했던 경험이 공사 중이니 입장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이 닫혀 있는 경우다. 머나먼 행로를 그 하나를 보기 위해 갔는데,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는 황당한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원칙이 전체를 위해서는 편리함을 줄지언정 당장 내 앞에서는 원망스럽기 짝이 없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주 쉽게 모든 게 통했다. 아직까지는. 원칙 없는 원칙이 원칙이다라는 신념이 있는 듯이.

조로아스트교의 사원인 불의 사원은 불이 선의 상징이라 여겨서 1934년 신전이 지어진 이래로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한다. 건물 정면에 조로아스트교의 상징인 날개 달린 아후라 마즈다 상이 붙어 있는데, 이후 다양한 기념품점에서 이 문양을 종종 발견하였다. 내부는 작고 초라하나 80년 가까이 꺼지지 않았다는 불길과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안내하는 사람의 이글거리는 눈동자가 불길의 오묘함과 함께 눈에 들어온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종교. 미국영화에 웬지 나쁜 이미지로 나오던 그런 종교가 있는 곳에 서있



불의 사원

없는 석조 타워에 시신을 앉은 자세로 놓아두면 독수리들이 살을 파먹고, 그리고 나면 성직자가 시체 곁에 앉아서 독수리들이 어느 쪽 눈을 먼저 파먹었는지를 살피고 오른쪽 눈을 먼저 파먹었으면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었다고 한다. 이런 조장의 풍습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이후에 위생상의 이유 등으로 금지되어 먹이가 떨어진 하늘의 독수리들은 이제는 보기 드물다고 전한다.

조장이 행해졌던 침묵의 탑(Dakhm-do-ye-Zartoshtiyun)에 도착하니, 황량한 벌판에 우뚝 솟은 산 꼭대기에 평평한 원형의 타워가 제법 크다. 이곳에 올라 설명과 함께 들으니, 죽은 이들의 피비린 냄새가 아직도 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곳에 피색에 가까운 붉은 기가 도는 흙 때문에 마치 아직도 시체들이 동그랗게 앉아있고 군데 군데 독수리가 쪼은 피의 흔적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런 착각을 날려준 건, 때마침 지나가는 차갑고 거센 사막의 바람 때문이었다. 타워의 중앙은 동그랗게 흙이 파여 있는데 이 중앙을 향해 경사가 기울어져 피가 이곳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는데, 추린 뼈들은 이 구멍에 모아두었다고 한다. 누군가 구멍에 뼈가 있다고 소리쳐서 아이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의 돌무더기들

이 다 핏빛으로 보이고 바람결에 코에 스치는 냄새는 피 냄새 같았다. 겨울인데도 낮은 햇빛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은 여행길이었지만, 바람이 불면, 온 사막을 훑고 온 바람의 위력을 실감나게 했다. 산등성이 위의 탑을 내려와서 주변을 보니, 이곳 외에는 드넓은 들판이다. 황색의 사막지대 같은 느낌이 마치 어느 미지의 혹성 같다.



침묵의탑



침묵의탑 주변



고대 석빙고

고대 석빙고 내부

한 여름 사막의 열대 기후는 40~50도를 넘나든다고 한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 이들이 생각해 낸 것은 한겨울 얼음을 잘 보관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석빙고가 있었다. 커다란 원추형의 형태로 한사람만 겨우 들어가는 입구와 지하실을 만들어 열을 빼앗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설계한 원추형 석빙고. 지금은 실제의 기능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관광객은 우리 버스에 내린 사람이 거의 전부였고, 떠나면서 보니 두 대의 차에서 내린 가족 여행으로 보이는 내국인인 듯한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자신들의 유적에 머나먼 동양인들이 단체로 와 준 것에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담겨있는 것 같았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할 만하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얼마인가? B.C.3500년부터 보면 6000여년. 이 긴 역사와 더불어 제국의 흥망성쇠를 말없이 지켜본 생명체가 있단다.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오래 살아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춤기도 뜨겁기도 으름인 사막의 흑한을 견디고 긴 세월을 유구히 남아 있는,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어떤 것일까? 책자에서 4500년 된 삼나무가 있다고 적혀있다.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벌판 한가운데에 엉성한 울타리 안쪽으로 밀둥이 커다란 나무가 한그루 달랑 있다. 설명이 없다면 뭘지 모르고 지나칠 법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가이드는 최근 들어 일본의



4500년 나무



학자가 년도 측정을 했는데, 7500년으로 나왔고, 러시아의 어떤 학자는 15000년으로 나왔다고 하니, 진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 나라의 역사와 함께 모든 것을 겪어 온 것만은 분명하다. 여전히 우리밖에 없는 한적한 그곳에서 역사의 유구함을 흠뻑 느끼며, 선진국이었던 이 나무도 훨씬 잘 대접받을 거라는 생각을 뒤로 하며 이 날 여정을 마쳤다.

Day 3 : 페르세폴리스가 있는, 쉬라즈(SHIRAZ) (핑크모스크, 페르세폴리스, Naqsh-e-Rajab Shapur, Naghsh-e-Rustam, 하페즈 묘소, 유리모스크, 바자르)

쉬라즈는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650km떨어진 마르브다슈트(Marv Dash)평야의 쿠이라마트(Kuh-i-Rahmat)산기슭에 위치하며 공원, 모스크, 신전 등 문화유적이 많이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이곳에 페르세폴리스의 어마어마한 유적이 있다. 페르세폴리스로 가기 전에 약 160년 전 카잘시대의 개인 무역상이 만든 개인 모스크인 핑크모스크(Nasir-al-Mulk)에 들렀다. 어제 본 Jame사



핑크모스크

원에 비해 규모는 작았으나, 그만큼 휴먼스케일이 훨씬 가슴에 다가온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원이었다. 어느 벽면이든 타일 모자이크와 채색된 벽돌의 정교함에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마침 동쪽 창문으로 스텐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형형색색의 빛을 받으며 내부에서 있으니 자연이 주는 감동이 신의 경지에 다다른 듯 했다. 불과 160년 전에 개인 무역상이 만든 사원이 이 정도라니, 당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재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원 내부에는 수십 미터의 우물을 파고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 말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인상 깊다. 이 나라 어디를 가든, 물은 이들의 큰 숙제였다. 물의 공급이 가능해야만 도시가, 건물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보통은 마을 공동의 우물을 사용하는데 반해 여기서는 개인 우물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핑크모스크

페르세폴리스는 기원전 510년 아케메데스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하였다고 하니, 2500여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셈이다. 330년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불태워지고 20,000마리의 노새와 5,000마리의 낙타에 보물이 실려나가는 엄청난 약탈을 당하였으나, 수세기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설 같은 옛 왕국의 터이다. 1930년대 시카고 대학의 동양학연구소의 후원으로 두 번에 걸친 탐사로 현재와 같은 유적이 발견되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 수백만의 전차가 왕궁을 향해 전진하였을 것 같은 왕궁을 향해 뻗어 있는 넓은 도로를 걸으니 폭이 넓은 계단이 나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니, 눈으로 믿기지 않은 장관이 펼쳐졌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로 만든 기둥과 기둥들의 운무. 산의 등성이에 왕가와 제국의 알현식과 연회를 위한 연회장, 연극무대 등의 흔적



페르세폴리스

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다리우스 1세는 생전에 계획 일부를 실현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석조벽에 새겨진 수많은 조각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구석구석을 둘러보니 2500년 전의 왕국의 영화가 절로 상상되어 진다. 불규칙한 바위투성이의 산의 사면을 잘라내어 거대한 기단을 만들어 세운 왕국의 유적 앞에 서 있으려니 역사의 흥망성사가 허무하다. 그 찬란했던 나라는 어디로 갔을까?

차로 10분정도 이동하니 Mercy산의 끝자락에 규모가 크지 않은

4개의 사산니언(Sasanid Empire 224-651)시대의 Naqsh-e-Rajab Shapur(암각부조)가 나온다. 암각부조는 사산 왕조의 권위를 만세상에 알리며 왕조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의미가 새겨져 있는데 당시 삶의 모습과 왕위 계승의 전통 예식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곳 역시도 주변이 황량하다. 황량하다 못해 정적이 감돌고 어느 하나 2000년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없다. 관광객도 우리뿐이다. 후손에게 대접 받지 못할지 언정 이들 유적들은 소리 없이 이곳을 지키며 지난 세월을 견디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찬란히 빛날 것 같다. 다시 차로 5분정도 가니 풀바르 강 건너편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이 중턱을 깎아서 만든 4개의 무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다리우스 1세의 무덤이 있는 Naghsh-e-Rustam(나르시에 로스탐)이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무덤들이 누구의 것인지 무덤하부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중간의 절벽에 새겨진 조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대의 문명도 절벽 중간에 돌을 까고 파서 무언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옛날 대단한 도구 없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무덤을 둘러보며 왕과 노예를 생각했다. 파랗다 못해 파란 물갈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절벽의 무덤 앞에 서 있으니 오늘의 내가 너



Naghsh-e-Rustam



Naqsh-e-Rajab Shapur

무 심약하고 초라하다. 자연 앞에 무능한 인간 개개인이 인간이 만든 군상 앞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님을 실감하니, 이름 없이 사라져 간 노예들이여 당시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기를. 계단 따라 내려와 주차장 밖으로 나오니 이곳에는 허름한 판매점이 있다. 가이드가 준비한 따뜻한 차와 이란과자를 먹는 맛이 참 좋다. 다른 몇 명의 관광객들에게 가이드는 다과를 권한다. 이것이 이란의 정서다.

다시 시내로 돌아왔다. 일본여행객하고는 다르게 빨리빨리 잘 따라줘서 내일보기로 한 일정인데 오늘 보자며 안내한 곳은 이란의 대표 시인인 하페즈의 무덤이다. 이란의 가정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코란이고 하나는 하페즈의 시집이라고 한다. 하페즈는 페르시아는 물론 자신의 고향인 쉬라즈도 벗어난 적이 없이 세속을 떠나 고독과 함께 시를 썼다는데, 하페즈의 유명세를 말해주듯, 이곳은 제법 관광객이 가득하다. 1452년에 지어진 아름다운 팔각형 기둥하부에 있는 무덤은 대리석 석판위에 하페즈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 이 돔 구조의 조형물은 우리의 팔각정과 유사한 느낌이다. 돔 구조 주변으로 삼면에 1773년도에 지어진 기념관이 있다. 정원의 나무들은 다양한 군생을 보여준다. 이 후에 방문한 왕의 궁전에도 거대한 정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물에 정원이 있는 것은 또 다른 권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물이 귀한 나라, 땅을 몇 십미터를 파야 물이 나오는 나라에 물을 주며 나무를 가꾸는 것은 엄청난 재력이 소모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어디서나 흔한 물이 이곳에서는 석유못지 않은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무덤이 있는 정원을 빠져나와 15분정도 거리를 걸었다. 1, 2층의 낮은 건물들, 초라해 보이는 도시는 다양성이 없다. 군부가 들어서기 이전 미국과 교류했던, 히잡도, 차도로도 없고 젊은이는 나이트클럽에서 서양식 춤을 추고 놀았던 1960년대 근대건축 초입으로 멈



화덕에 구운 난을 파는 가게

춘 듯한 풍경이다. 아주 작은 빵집이 보였다. 이스트 없는 화덕에 구운 빵인 난을 굽는 곳이다. 터키의 빵과는 다르게 크기가 무지 크다. 정부 지원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빵을 먹을 수 있어서 이 나라에는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갓 구운 따뜻한 난을 사서 먹으며 우리 일행은 유리 모스크(이맘자데예 알리에브네 함제의 묘)에 다다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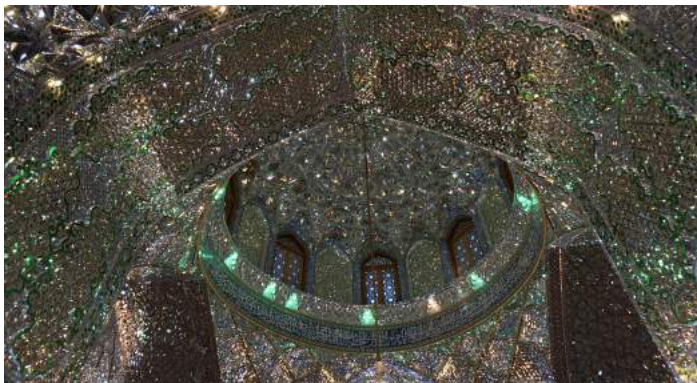


하페즈묘소

유리 모스크(이맘자데예 알리에브네 함제의 묘)에 입장하려면 여자들은 모두 입구에 준비된 차도드를 머리에서부터 써야 한다. 단 이곳의 차도드는 검은 색이 아니라 형형색색 다양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간 듯, 머리에 걸치니 역한 냄새가 진동한다. 이곳은 '이맘 레자'의 형제의 묘라고 하는데 내부 장식이 벽과 돔 모두 유리로 되어 있다.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들어가서 구석에 가부좌하고 앉아 위를 쳐다보니 어두운데도 눈이 부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현란한 아름다움이 보인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느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나도 조용히 눈



유리모스크



유리모스크 내부

을 감는다. 사실 우리는 이슬람 문화를 잘 모른다. 터키를 여행하면서도 느꼈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분명하다.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는 서양문화의 우월성만 알지 서양문화에 가려진 그 외 다른 나라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없다. 페르시아는 역사책 속에 언급되지만, 책 속에 등장하는 내용 외에는 별반 지식이 없으니 이



카림 한에 잔드(18세기)

런 유산 앞에 있으면 그냥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유리 모스크 마당에 깔려있는 각기 다른 문양과 크기의 돌의 묘지명을 밟으며 차도르를 돌려주고 밖으로 나왔다. 오늘도 거대한 역사위에 차려진 찬란한 유적의 밥상을 실컷 먹고 18세기 성채 카림 한-에 잔드 담 길을 지나서 시장이라 불리는 바자르를 둘러보았다. 바자르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동서 교역을 잘했던 이슬람 국가들의 상징처럼 보인다. 눈, 비와 상관없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돔의 지붕이 연속으로 이어져, 도시의 크기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바자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시장을 돌아보니 조잡하고 싼 중국산 상품도 보이고, 한국산 비단도 보인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화려한 여자들의 드레스도 눈에 뜨인다. 일반주택이 외부에서 보면 초라해 보이거나 들어가면 온갖 장식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이중적 구조의 이들 문화가 나에게서는 다채로워 보인다. 하루 일만보 이상을 걷다보니 다리는 무겁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내일이면 이스파한으로 긴 이동을 한다. (계속)



바자르



serial

글. 이관석_ Lee, Kwan-seok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예술·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떠했는지, 다소 엉뚱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불행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시피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건축사 학위를, 파리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움>(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3.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4.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上)
7.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下)

7.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下)

_ 정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과 감동으로서의 건축

르코르뷔지에 연재의 마지막 주제인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에서는 1920년대에 그가 발행했던 『레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에서 비롯되어 책으로 편찬된 그의 여러 저술들에서 20 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의 모습을 찾고자 그가 여러 관점에서 모색하고 주장했던 건축 정의들을 <표1>로 정리하여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직전 연재 글에서는 그중 르코르뷔지에가 어떻게 남다른 시대정신을 갖게 됐고 이를 반영한 건축을 원했는지와 물질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건축의 정의들에 담긴 의미까지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생각과 그가 건축이 이르려야 할 궁극적 목표로 지향한,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로서 감동을 주는 건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표1.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새로운 건축 정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건축			
물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정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기능과 조직으로서의 건축	동선과 볼륨으로서의 건축	질서와 조화로서의 건축	자연광을 기본으로 한 건축
감동으로서의 건축			

정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1) 질서와 조화로서의 건축

질서와 조화는 고대부터 건축의 덕목으로 간주되어오던 개념이었지만¹⁾, 르코르뷔지에에는 이것을 정신적이고 감동적인 건축에 반드시 잠재되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봤다. 건축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그는 “정신적 기쁨이자 비례”²⁾인 기하학을 중시하고 활용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기하학적입니다... (중략) 건축적 구성은 기하학적이며 주로 시각적 질서”이자 “양과 관계의 판단이며, 비

례의 감상”이라는 언급은³⁾ 그가 기하학을 통해 올바른 관계성, 적절한 비례감 등을 통한 질서와 조화를 구현코자 했음을 보여준다.

18세기 프랑스 도로교량국의 수석공학자 페로네(R. Perronet, 1708~1794)가 특이하게 길거나 얇은 교량 스패를 위해 역학과 재료의 강도를 고려한 과학적 계산이 요구됨을 간파하거나 수학자 벨리도르(B. F. de Bélidor, 1698~1761)가 비과학적 방법을 파기하고 수학이 건축에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건축사에게 권유한 사례 등과 같이 건축과 과학의 접목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지닌 논리성, 합리성, 정확성이 당시 전위건축사들을 매료시켰고 그중 공간을 구축하는 건축과 가장 관련 깊은 기하학이 건축에 응용되어 조화를 추구해나가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건축은 분석에서 종합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이며, 깊은 심리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정확하고 압도적인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정신을 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해결책을 깨달으면서 느끼는 진정한 정신적 환희며, 작업의 각 요소들을 다른 것들과 통합하고, 전체를 환경과 대지라는 다른 실재에 통합하는 수학의 명쾌함에서 얻을 수 있는 조화로운 감각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⁴⁾ “기계는 계산이다. 계산은 정확한 분석에 의해 우리가 어렵듯이 아는 우주를, 또한 삶의 질서라는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주변의 자연을 우리의 눈에 설명해주며, 우리의 자연적 능력을 보완하는 창조적 인간 체계다. 계산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기하학이다... (중략) 기계는 기하학 그 자체다. 기하학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며, 우리는 그것에 매혹된다.”⁵⁾는 르코르뷔지에의 언급은 시대정신의 상징인 기계에서 수학, 기하학으로 이어지는 그의 사고과정을 보여준다. 종합하고 창조하는 건설자가 분석하고 수학을 응용하는 엔지니어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수용코자 한 것이다.⁶⁾

르코르뷔지에에는 건축을 “원재료를 사용하여 감동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⁷⁾, “실용적인 필요를 초월한 것”⁸⁾으로 여겼다. 이러한 그

1) 규칙, 표준, 규범, 조화, 자제, 균형, 근엄 등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학문 및 예술에서부터 추구되던 개념이었다. W. Tatarkiewicz,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효주 역, 미진사, 1980, 211~219쪽 참조.

2)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77쪽.

3) 위의 책, 152쪽.

4) 위의 책, 178쪽.

5)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30~131쪽.

6)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49쪽.

7)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25 & 161쪽.

8) 위의 책, 161쪽.

Le Corbusier

에게 기하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비례”⁹⁾를 구성하고 “우리의 감동과 자연의 아름다움, 우리의 힘에 대한 생생한 이해, 이 모든 것을 건축적 조직 체계에 통합”¹⁰⁾하는 수단이었다. 그 이유를 “과학이 우주의 현상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창조적 능력을 주었고, 건축은 인간의 창조에 필요한 조건”¹¹⁾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기하학은 “조형적 창조물이자 지적인 사색이며, 고등 수학인 건축”¹²⁾이 과학과 접목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은 감동적인 관계를 통해 정신적 숭고함의 상태, 수학적 질서, 사색 및 조화를 인식하게 하는 훌륭한 예술이다. 이것이 건축의 목적이다.”¹³⁾라는 주장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엔지니어처럼 “기하학으로 우리의 눈을, 수학으로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키면서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할 것을 주장한¹⁴⁾ 르코르뷔지에에는 엄격한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 엔지니어들이 형태를 만들고 규정하는 선을 사용하여 명쾌하고 인상적인 조형물을 창조하는 것을 본받고 싶어 했다.

질서와 조화로서의 건축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욕구는 그가 화가 오장팡(Amédée Ozenfant, 1886~1966)과 함께 입체주의(Cubisme)가 회화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며 장식적인 예술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 큐비즘 대신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하며 또한 구조적인 예술로 순수주의(Purisme)를 제안한 데서도 드러난다. 회화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창조를 선도해온 그에게¹⁵⁾ 조형언어의 순수화 작업 필요성은 회화적 공간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와 아울러 자연의 질서와 기계화된 세상의 질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발되었다. 그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술의 원인 그 자체인 질서에 대한 욕구라고 보았다. 명료성과 순수성의 예술, 지적 질서의 감동을 일으키는 작품을 위해 근원적인 요소

들을 선택하고 정돈하려는 자세를 견지한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고착된 공식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은 관계”¹⁶⁾라고 갈파하며 고도의 질서로부터 만족을 얻어내는 건축¹⁷⁾, 다양한 아름다운 형태들이 기하학적 원리의 통일성 같은 규칙을 따라 발전하여 심오한 조화를 전달하는 건축¹⁸⁾, “질서의 정신, 의도의 통일성, 관계에 대한 감각”¹⁹⁾인 건축을 탐구하였다. 이 질서라는 단어는 “건축사는 형태의 배치를 통해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인 질서를 실현한다. 그는 형태를 통해 조형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감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가 창조하는 관계들은 우리의 내부에 깊은 공명을 일으키며, 우리 세계의 척도와 일치되게 느껴지는 질서의 척도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우리의 마음과 이해의 각종 움직임을 결정한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²⁰⁾ 같은 문장의 예와 같이 『건축을 향하여』에서 50회나 언급되는데, 그가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인 질서’를 건축사가 실현시킬 매우 중요한 주요 덕목으로 여겼음을 확인시켜준다.

르코르뷔지에가 여러 종류의 개구부가 있는 파사드의 구성에 대해 “독단에 대항하는 보증”이자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추구로 이끄는 정신적 질서를 만족시키는”²¹⁾ 방안으로 제안한 ‘조정선(les tracés régulateurs)’도 “비율의 발명과 채움과 비움의 선택”을 통해 시적 창조물을 만들고자 의도한 결과다. “질서를 잘 인식하게 해주는 섬세한 수학을 불러오는”²²⁾ 조정선은 ‘황금분할’을 기초로 한 파사드 정돈법으로서 서로 직각을 이루며 만나는 대각선들의 유희, 수평선들 사이에 1, 2, 4와 같은 산술적인 질서관계에 기초를 둔 수학적 정돈을 추구하며 평면을 감안한 지적인 산물이다. 일일이 선을 그려보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건축사의 감각으로만 제어되는, 각 개구부의 위치와 모양까지 상호 연

9)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152쪽.

10) 위의 책, 151쪽.

11) 위의 책, 151쪽.

12)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55쪽.

13) 위의 책, 125쪽.

14) 위의 책, 43쪽.

15) “사람들은 나를 건축사로만 인정하고 화가로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내가 건축에 이른 것은 나의 그림이라는 경로를 통해서였다.” Lucien Hervé, Le Corbusier: l'artiste et l'écrivain, Ed. du Griffon, 1970에서 인용. “나는 항상 나의 그림을 건축-도시계획과 회화와 조각 같은 순수예술 사이의 충만한 조형적·지적 평형의 표명으로 여겨왔다.” Le Corbusier, Purisme, Art d'aujourd'hui, 1950. Reinhold Hohl, Le Corbusier, Editions beyeler bâle, 1971, 12쪽에서 재인용.

16)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242쪽.

17) “... 만약 이러한 볼륨들이 정연하고, 변형에 의해 불쌍스럽게 망쳐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의 배열이 흐트러진 덩어리가 아니라 명쾌한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면, 공간과 볼륨의 관계가 올바른 비례가 되어 있다면, 눈은 조정된 감정을 두뇌에 전달하고 마음은 고도의 질서로부터 만족을 얻어낸다. 이것이 건축이다.”(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67~68쪽)

18)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68쪽.

19) 위의 책, 161쪽.

20) 위의 책, 31쪽.

21) 위의 책, 91쪽.

22) 위의 책, 91쪽.

관성이 설명되는, 소수의 수준 높은 미의식 소유자만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조정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조차 우연에 맡겨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철저히 의도된 건축을 원하는 르코르뷔지에의 집념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2) 빛(자연광)을 기본으로 하는 건축

공간과 빛이 창출한 운율의 걸작인 브루스의 푸른회교사원(la Mosquée Verte de Brousse)의 단면을 인용하곤 하는 르코르뷔지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듯 나는 빛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나에게 빛은 건축의 기본입니다. 나는 빛과 함께 구성합니다.”²³⁾라고 고백했다. 근대건축에서 자연광의 중요성 자각은 대표적 특성 중 하나지만,²⁴⁾ 그는 자신이 행하는 건축의 기본으로까지 빛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이것은, 물론 책의 여러 곳에서 환기와 함께 위생의 관점에서 빛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빛을 감정의 소통수단으로, 감동을 유발하는 핵심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폼페이의 까사 델 노체(Casa del Noce)의 내부에서 창을 통해 유입되는 광량에 따라 즐거움과 평온함, 슬픔의 효과가 창출됨을²⁵⁾, “외부는 늘 하나의 내부다”고 하면서 폼페이 포룸의 외부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대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방의 벽들처럼 우뚝 서있고 이 벽들이 빛과 관련하여 빛과 그림자, 슬픔, 유쾌함, 또는 평온함을 가져옴을 발견했다²⁶⁾. “빛의 유쾌한 충격 또는 어둠의 으스스함, 양지바른 침실의 고요함 또는 어두운 구석에 가득한 고뇌”²⁷⁾를 주는, 우리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빛과 건축의 불가분의 관계를 “건축은 빛 아래에서의 질서체계, 아름다운 프리즘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²⁸⁾라는 말로 표현한 르코르뷔지에는 물체 위에 비치는 빛과 연속되는 볼륨이 인간의 육체적·생리적 감각을 자극²⁹⁾함에 있어 빛을 받는 벽(수평적 벽인 바닥 포함)의 존재

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반사하는 벽들 사이에 있을 때 빛은 더욱 강렬해지는데, 이렇게 잘 조명된 벽을 세우는 일은 내부 건축 요소들의 관계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때 좋은 비례를 성취하면 좋은 건축이 된다는 것이다.³⁰⁾ 빛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데 벽과 같은 불투명성(opacité)이 필요하며 또한 빛과의 관계에서만 이 불투명체가 공간을 정착시킨다는, 빛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고정될 수 없다는 빛에 대한 자각은 르코르뷔지에가 자신의 정신을 계승한 후진들에게 준 소중한 교훈 중 하나였다.³¹⁾

르코르뷔지에는 새로운 건축이 바닥판을 지지하는 벽에 창문을 뚫는 모순을 지닌 과거 건축과 달리 돔-이노 이론에 의해 ‘자유로운 파사드(façade libre)’가 가능해지면서 창을 마음껏 뚫을 수 있어 마침내 활기 있는 활동이 가능해졌으므로 “건축은 밝게 비치는 바닥으로 이루어졌습니다.”³²⁾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자신이 도전하는 창문과 관련된 모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 활동한 비올라(Giacomo da Vignola, 1507~1573)가 후세를 위해 그리스 예술의 규범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믿은 것에 반하여 “건축은 밝게 비치는 바닥”이라고 외치는 ‘비올라로부터의 탈출’ 선언이었다.³³⁾ 밝게 비추는 바닥을 위해 꼭 필요했던 수평창(fenêtre en longueur)의 가치에 대해 자신에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가르쳐준 스승인 페레(Auguste Perret, 1874~1954)와 벌였던 논쟁은 파노라마의 전망을 주는 수평창이 동일한 면적의 수직창에 비해 더 많은 빛을 실내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했다. 그는 수평창이 있는 방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직창의 방에서보다 감광판을 1/4만 노출해도 됨을 알았다.³⁴⁾ “빛 아래에서 건축이 탄생한다.”³⁵⁾고 믿는 그가 전통건축에서 두꺼운 내력벽의 틈새로 가까스로 유입되는 빛의 한계를 타파하고 빛으로 충만한 공간을 지닌 새로운 건축을 위한 탐구의 결과였다.

이와 같이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에서 빛이 차지하는 높은 위상은 그가 1920년대에 백색건축에 집착한 이유와도 유관하다. 『오늘날의

23)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151쪽.

24) 건축의 세 가지 근본요소는 언제나 재료, 공간, 빛이었지만 근대건축에서 이 세 요소의 중요도에 변화가 생겼다. 재료에서부터 공간과 빛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건축의 비물 질화과정이다. Michel Ragon, Histoire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moderne, tome 2, Casterman, 1986, 74쪽 참조. 르코르뷔지에도 “건축의 요소는 빛과 그림자, 벽과 공간이다.”(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83쪽)라고 규정하면서 빛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25)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90쪽.

26) 위의 책, 194~195쪽.

27)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92쪽.

28)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70쪽.

29)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92쪽.

30)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91쪽.

31) 시리아니 같은 건축사는 이런 이유로 “건축은 첫 번째 불투명체를 놓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Henri Ciriani, Lumière de l'espace, l'Architecture d'Aujourd'hui, n°274, 1991, 76쪽.

32)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56~57쪽.

33)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67~68쪽.

34) 위의 책, 72~73쪽.

35) 위의 책, 33쪽.

Le Corbusier

장식예술』의 마지막 장인 「흰색 도료 칠, 리폴린의 법」은 백색을 도덕적이고 순수하며 완전함이라고 했다.³⁶⁾ 모호함의 제거이자 아름다운 사물을 향한 의도적인 집중인³⁷⁾ 백색이 빛을 끌어들여 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한다고 여겼다. 진실과 동의어로서 색채의 부재(물질로서의 안료)이자 색채의 종합(정신으로서의 빛)으로서 아무 것도 없음과 모든 것의 있음, 혹은 침묵과 계몽을 동시에 의미하는 아름다운 백색은 그에게 ‘순수’이자 ‘정의’였던 것이다.³⁸⁾ 백색을 모든 색의 원형이자 색을 광학적 체계로 인식하여 모든 색이 존재하는 빛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던 말레비치(K. Malevich, 1879~1935)의 절대주의(Suprématisme)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후일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의 대표 색채로서 각 지역의 고유색을 축출한 무표정의 색으로 지탄받기도 한 백색은 이와 같이 물질로 구성되는 건축물에 정신성을 덧입히려는 시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르코르뷔지에가 백색건축에서 벗어난 1930년대 이후에도 빛은 여전히 건축을 감동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였다. “건축은 빛 아래에 볼륨들을 숙련되고 정확하고 장엄하게 모으는 작업이다.”는 정의를 빛과 볼륨의 관계에서 되새겨보면, 이 볼륨들은 입방체, 원추형, 구형, 피라미드형 같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본 형태들이어야 했다. 이런 기하학적 볼륨들이야말로 빛에 의해 그 모양을 잘 드러내어 모호함이 없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축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감동으로서의 건축

1) 관계를 통한 시적 감동이 있는 건축

건축의 목적으로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저서들에 등장하는

가장 궁극적인 연명은 감동을 주는 건축을 말할 때다. 필요에 따라 물질을 동원해 계획된 건축물이 정신적 미학을 내포한 채 감동까지 불러일으키는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다. “건축은 건설의 문제 저 너머에 있는 예술이며 감동의 사건이다. 건설의 목적이 건물을 지탱하는 일이라면, 건축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에 있다.”³⁹⁾는 주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건축사가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엔지니어”⁴⁰⁾의 선구적 정신을 본받아야 함을 권면하면서도 결국은 건축사가 행하는 작업이 엔지니어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건물을 지탱하는 임무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심금을 울리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감격을 현대건축에서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건축이 건물 전체에 내재된 감각 속에서 존재함을 말한다. 르코르뷔지에가 너희가 시인이냐는 빈정거림과 멸시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은 건축, 그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만, 우리는 건축, 그것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고 대답”⁴¹⁾한 것도 동일하게 실용성을 넘어선 건축의 또 다른 경지를 그가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예술을 시(詩), 감각의 감동이자 측정하고 감상하는 정신의 기쁨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창조의 최고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로 여긴⁴²⁾ 르코르뷔지에는 “시적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건축이 되는 것이다.”⁴³⁾ 라는 말로 건축의 위상을 끌어올림으로써 건축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기를 원했다. “조형적 감동의 대상인 건축”⁴⁴⁾을 “인간과 분리될 수 없고 순수한 행복을 주는 힘을 가진 정말 확고한 심적 고양의 원천”⁴⁵⁾이자 “영혼의 감동을 표현하는 계수일 뿐 아니라 각 시대의 힘의 지수를 반영하는 웅변적인 거울”⁴⁶⁾인 예술의 영역까지 고양시키는 방안으로 그가 가장 중시한 것은 ‘관계’였다.⁴⁷⁾

그는 이 관계가 구, 입방체, 원통형, 수평선, 수직선, 사선 등과 같

36)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216쪽.

37) 위의 책, 220쪽.

38) Le Corbusier, L'Art décoratif d'aujourd'hui, 1925, 191쪽. 정진국, 『르 코르뷔지에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 (주)공간사, 2001, 27쪽에서 인용.

39)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37쪽.

40) 위의 책, 35쪽.

41) 위의 책, 11~13쪽.

42) 위의 책, 220쪽.

43) 위의 책, 215쪽.

44) 위의 책, 35쪽.

45)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39쪽.

46) 위의 책, 141쪽.

47) “건축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감동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61쪽) “움직이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고 다소 실용적인 조 건들에서 출발하여 당신은 나를 감동시키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었다. 이것이 건축이다.”(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63쪽)

이 기본적으로서 우리의 감각을 두드리기 쉽고 우리의 시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소들을 세련됨이나 거침으로, 분방함이나 평온함으로, 냉담함이나 감흥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감동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여 기억과 분석, 추리와 창조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생성시킴으로써 생겨난다고 여겼다.⁴⁸⁾ 이러한 형태 배치를 통해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인 질서를 실현함으로써 조형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이때 창조된 관계들은 우리의 내부에 깊이 공명하여 우리 세계의 척도와 일치되게 느껴지는 ‘질서’의 척도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우리의 마음과 이해의 각종 움직임을 결정하게 되고, 그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⁴⁹⁾. 적절한 배치에 따른 질서는 우리를 매료시키는, 정신의 창조물인 ‘조화’를 가져오고⁵⁰⁾, 르코르뷔지에가 건축의 열쇠로 여기는, 매혹적인 느낌을 고양시키는 도구인 조화로운 비례⁵¹⁾를 통해 마침내 건축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건축전문가라면 건축물을 봤을 때 한순간 타올랐다가 곧 씩씩하게 사그라지는 ‘감탄’과 비록 즉발성은 약해도 마음속에 오랜 여운으로 남는 ‘감동’의 유발 차이가 뭇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르코르뷔지에는 이 감동의 발현 근원을 자신의 개인적 선호도에 따른 특정 인자로 보지 않고 관계성에서 찾은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에서 관계는 건축요소들의 배치를 통해 구축됨을 적시함으로써 전술한 올바른 질서체계의 실현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된다.

2) 감동의 체험

르코르뷔지에는 건축에서 감동을 느끼는데 필요한 조화로운 관계는 감각을 고양시키기 시작하는 민감한 수학인 ‘비율’⁵²⁾을 통한 수학적 감수성에 의해 감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수학적 감수성

은 기계들처럼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사육 없는 ‘순수한’ 일련의 관계들 안에서 순수한 형태의 구성을 명령한다고 보았다.⁵³⁾ 그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산업의 순수성을 포착했으며⁵⁴⁾, 순수함, 경제성, 지혜를 향한 집중으로 요약되는 기계의 교훈에서 현대예술의 미덕 중 하나인 단순성이 “빈곤이 아니라 선택이자 구별이며, 순수성을 목표로 한 결정체”⁵⁵⁾임을 적시하였다. 이것을 역으로 정리해 보면, 전술한 모호함이 없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축을 가능케 하는 순수한 기하학적 볼륨들이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적절한 관계성을 이룰 때 건축적 감동을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건축은 감동적인 관계를 통해 정신적 숭고함의 상태, 수학적 질서, 사색 및 조화를 인식하게 하는 훌륭한 예술이다. 이것이 건축의 목적이다.”⁵⁶⁾는 토로와 같이 이러한 좋은 건축은 감동을 주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본 것이다.

“고상함, 순수함, 지적인 사색, 조형적 아름다움, 비례의 불멸성 등이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건축의 가장 크고 뜻 깊은 즐거움”⁵⁷⁾이라고 생각한 르코르뷔지에는 “공간, 치수와 형태, 내부 공간과 내부 형태, 내부 경로와 외부 형태, 외부 공간(양, 무게, 거리, 환경) 등이 어우러진 결과”⁵⁸⁾인 건축의 체험은 ‘순환동선’에 의해 가능했다. 앞서 ‘동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환동선이 “현대 기술이 가져온 건축적 자유를 모르는 방문자를 당황하게 하는 다양한 건축적 감동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에 내재된 감동은, 이미지 속에서 즉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순간적 형태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끊임없이 선보이지만 회화와 같이 정태적 관찰자가 평면에 투사된 이미지를 통해 간접경험을 얻는 영화나 독자의 수준에 따라 상상의 연속이라는 정신적 감응을 통해 시·공을 넘나드는 설명적 묘사에 기대는 문학과 달리, 내·외부를 속속들이 답파하는 사용자에게 의해 무언(無言)의 정태(靜態)에서 4차원적으로 읽히는, 체험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내구체인 건축⁵⁹⁾ 속에서 물리

48)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36쪽.

49) 위의 책, 31쪽.

50) “건축적 감동은 우리가 따르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법칙을 지닌 우주와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 우리 안에서 공명될 때 존재한다. 조화가 이루어질 때 작품은 우리를 매료시킨다. 건축은 ‘조화’의 문제이며 그것은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이다.”(위의 책, 37쪽)

51) Le Corbusier,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83쪽.

52)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05쪽.

53) 위의 책, 133쪽.

54) “곤 산업은 개념에서의 우아함, 실행에서의 순수성, 그리고 작동에서의 효율성으로부터 제공된 즐거움으로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유용성과 편의성을 지닌 도구를 생산해낼 것이다.”(위의 책, 101쪽)

55)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99쪽.

56)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25쪽.

57)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242쪽.

58) 위의 책, 87쪽.

59) 이관석, 『건축적 산책 개념으로 본 건축에서의 시·공간』, 프랑스학연구 제 19권, 2000, 177쪽.

Le Corbusier

적인 실체를 넘어서 공간적 감흥으로 체험된다는 의미다. 그가 기능적인 의미가 아닌 정서적인 이유로 건축을 내부적인 순환이라는 측면으로 고찰한 것도 건축을 통해 발현되는 진정한 건축적 감동이 건축공간에 내재하는 질서에 의해 구성되는 단위 요소들의 구조적 상호 관계를 통해 구현되는 것임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르코르뷔지에의 새로운 건축을 향한 매진은 수준 높은 교육과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된 깨어있는 여행을 통해 산업세계의 본질을 자각한 데서 시작됐다. 저서들 전반에 배어있는, 외적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혜안이 감지된다. 지식의 마구잡이 집적만으로는 얻기 힘든 통찰력이 엿보인다. 그가 품었던 기계를 향한 경의는 기계의 색다른 외모나 강력한 출력에서라기 보다는 작은 나사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 하나라도 잘못되면 아무리 큰 기계라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치밀한 논리성과 정확성, 대량생산이 전제된 효율성과 순수성 때문이었다. 비행기 제작을 위해 새나 잡자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냉정한 이성을 동원, 부양하고 추진하는 수단을 공기에서 찾는 자세는 본질에 대한 그의 의문 제기 능력을 보여준다.

건축사로서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문필가로서의 활동을 병행한 르코르뷔지에가 1920년대에 발간한 수사학적이며서 창조적이고 교훈적인 저서들에서 거론한 건축 정의에 사용된 용어들의 특징과 영향력의 배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르코르뷔지에가 당시의 수구·퇴행적 건축 행태에 날카롭게 맞서 대립각을 세웠지만 그가 주창한 새로운 건축을 설명하는 용어들은 의외로 건축에서의 전통적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건축이 외형적으로는 이전 건축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내면적 가치에서는 예술과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추구되던 덕목들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그럼에도 그의 글들이 지닌 역동성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먼저 누구도 선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비전의 거침없는 토로에 대한 열광 때문일 것이다. 세기말의 혼란스런 전환기를 이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불확실성의 시기에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의 안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을 향한 일로 매진은 그의 혁신적 건축 작품과 맞물려 새로운 길을 찾던 예술문

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표현방법으로서의 독특함을 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듬어진 문장을 구사하는 학자가 아닌 영감이 넘치는 혁명적 예술가로서 이미지-이미지 또는 이미지-텍스트 병치법에 의해 논리와 감성, 섬세와 과격, 체계와 파격이 공존하는 선동적인 논쟁들을 발표하여 독자들을 매료시킨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발표된 저서들로 정리된 르코르뷔지에의 필력은 새로운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위상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는데, 그 과정을 본 글의 주제인 건축의 정의 단계와 연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기능 및 조직과 연관된 언급을 고찰했다. 기능과 대상에서의 질서체계가 바르게 수립된 건축을 염원했던 르코르뷔지에의 완벽성에 도달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이 특히 강조되어 자칫 개인의 가치까지 위축시킬 수 있을 만큼 집요하게 표준과 유형의 모색에 집중했다. 기능을 단순 용도나 쓸모가 아닌 아름다움의 작용 원천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는 건축의 기능이 모호함이 없는 간결성과 명확성을 드러내는 기본 형태들이 보여주는 추상성을 통해 가장 고양된다고 주장했다. 엔지니어의 미학 존중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동선 개념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개방적이고 연속적이며 융통성 있는 근대적 공간성 구축에 유념하고 이를 누리는 건축을 상정했고, 르코르뷔지에가 주의 깊게 구분 사용함을 포착한 볼륨이라는 용어의 의미 고찰을 통해 그가 내·외부공간이 함께 고려되는 새로운 건축의 면모를 원했음을 보았다. “건축은 빛 아래에 볼륨을 숙련되고 정확하게 장엄하게 모으는 작업”이라는 중심적 모토의 재해석은 1920년대 그의 건축 작품에 담긴 의미를 보여준다.

세 번째, 건축의 고전적 덕목에 해당하는 질서와 조화를 정신적이고 감동적인 건축에 꼭 내재되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본 르코르뷔지에가 그 방안으로 기하학을 활용하여 좋은 비례를 가진, 기하학으로 조정된 기본적인 형태의 단순미를 보이는 건축을 내세웠음을 보았다. 보이지 않으나 엄존하는 질서체계인 조정선 같은 사례에서 보듯 관계성을 중시하여 함축된 고도의 질서로부터 만족을 얻는 건축을 도모한 것이다.

네 번째, 감정의 소통수단으로, 감동을 유발하는 핵심요소로서 르코르뷔지에가 건축의 기본으로까지 격상된 자연광이 잘 사용된 건축을 기대했음을 보았다.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기하학적인 기본 형태인 단순한 볼륨에 이 빛을 비추어 내·외부 공간이 공명

60) Le Corbusier,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에서 Deborah Gans가 쓴 1999년판의 서문, 2001, 12-13쪽.

61)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49쪽.

하는, 모호함이 없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조명이라는 일차적 기능을 넘어 동선을 지시하고 인간의 감정을 두드리는 자연광의 다양한 역할 이해는 오늘날 자연광이 건축의 실제적인 주요 재료가 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감동으로서의 건축을 주장함으로써 건축을 예술의 반열로 격상시킨 르코르뷔지에의 여러 언명은 전술한 순수한 기하학적 볼륨들이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적절한 관계성을 구축할 때 건축적 감동이 창조됨을 말한다. 감성적인 내구체인 건축물에서 수학적 감수성에 의해 감지되는 조화로운 관계는 순환동선에 의해 일찍 공간적 감흥으로 체험된다. 앞에서 엔지니어의 미학을 언급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경지를 추구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저서들에 나타나는 건축의 정의들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계몽성이 강했다. 대치점에서의 치열함에 의해, 인간의 문화와 역사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 때로 개인의 가치가 경시되는 등의 과도한 시도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1920년대가 지나면서 그는 또 다른 건축의 길을 찾아 나서지만 결코 초기의 신념이나 그 원천들을 폐기하지는 않았다.⁶⁰⁾ 새로이 받아들인 부분들을 다듬고 재정비하고 재구성하여 종합적인 전체로 만드는 열정과 능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르코르뷔지에의 삶과 1920년대를 총체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당시는 “보잘것없는 장식은 뒷전으로 밀려나 비례와 척도가 성취됨으로써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초보적인 만족(장식)을 지나서 상위의 만족(수학)에 이르게 되었다.”⁶¹⁾라는 주장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장식의 존재에 대해 왈가왈부해야 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지금 그의 건축 정의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과거 답습을 위함일 수 없다. 대신 당시 르코르뷔지에가 그러했듯 오늘날은 현재의 건축이 무엇인가? 를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1920년대의 정의들 중에서 시간을 넘어선, 건축의 본질에 기초한 까닭에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을 아직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성도 유의미할 것이다.

그동안 때로는 지루했을 르코르뷔지에 연재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작업들 많이 하셔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1. 이관석, 「건축적 산책 개념으로 본 건축에서의 시·공간」, 프랑스학연구 제19권, 2000
2. 이관석, 『르코르뷔지에, 근대 건축의 거장』, 살림, 2006
3. 이관석,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 동녘, 2011
4. 정진국, 『르 코르뷔지에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 (주)공간사, 2001
5. BESSET, Maurice, Le Corbusier, Skira, 1987
6. CIRIANI, Henri Lumière de l'espace, l'Architecture d'Aujourd'hui, n°274, 1991
7. COHEN, J.-L.(int.), Le Corbusier, le Grand, Phaidon, 2008
8. HERVÉ, Lucien, Le Corbusier: l'artiste et l'écrivain, Ed. du Griffon, 1970
9. HOHL, Reinhold, Le Corbusier, Editions beyeler bâle, 1971
10. Le Corbusier,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11.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2.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13.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4. LUCAN, Jacques(Direction de l'ouvrage),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15. RAGON, Michel, Histoire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moderne, tome 2, Casterman, 1986
16. TATARKIEWICZ, W.,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호주 역, 미진사, 1980

건축사연맹 제 126차 이사회 및 실무위원회 참가보고서

Report on UIA PPC, Paris, 2015

글. 이근창_Yi, Kun-chang 자문위원(UIA이사)
신춘규_Shin, Chun-gyu 자문위원(ARCASIA PPC 위원장)

조인숙_Cho, In-souk 자문위원- (UIA W.P 공동위원장)
오동희_Oh, Dong-hee 국제위원장

참가배경

국제건축사연맹(UIA)은 세 개의 분과위원회와 현재 12개의 work program들이 있다. 세 개의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PPC),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그리고 현상설계 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위해 1년에 두 번 열리는 Council Meeting과 연계하여 주요 위원회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PAM)의 Esa Mohamed가 UIA 회장이 된 후 첫 번째 갖는 이사회에 연계하여 UIA 본부인 파리에서 실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work program의 디렉터들이 함께 2015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회의를 가졌다. 실무분과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2월9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이사회는 12일, 13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UIA에는 우리나라는 FIKA로서 가입이 되어 있고, FIKA는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그리고 건축학회 세단체로 된 Ad hoc body(임시 합의된 단체)로 구성된 단체이다. 따라서 UIA에서의 역할 분담을 한 결과 실무와 가장 근접한 우리 협회가 실무위원회를, 학회가 교육위원회를, 가협회가 현상설계위원회를 맡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실무위원회는 우리 협회에서 줄곧 참석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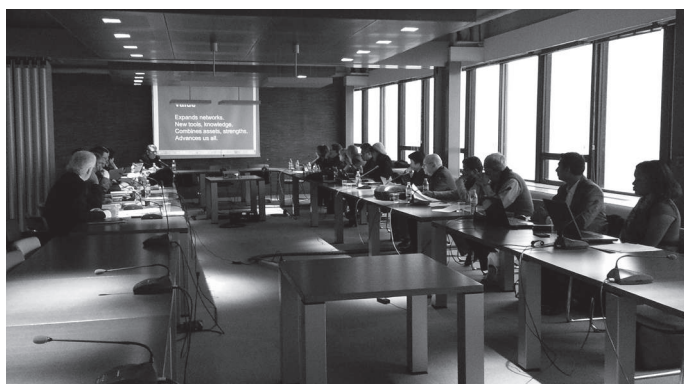


UIA 본부와 프랑스 건축사협회가 있는 몽파르나스 타워(47층)

2015년도 파리에서 열린 국제건축사연맹 회의에서는 이사회의 UIA이사인 이근창 자문위원과 대리이사인 한영근 위원, 실무분과위원회에 본협회를 대표하여 오동희 위원장과 신춘규 자문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Heritage Work programme에 조인숙 위원이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다. 그리고 학회에서 교육위원회 불참으로 조인숙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세부일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Time	Activity	Venue	Chair
Sunday & February			
Full day	Arrival		
Monday 9 February			
10:00~18:00	Validation council meeting	Room II+III (Video proj+micro)	Esa Mohamed&Jana Revedin(UNESCO)
14:00~18:00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Steering committee meeting	Room I	Rick incicome&Zhuang Weimin
12:30~13:30	Lunch		
Tuesday 10 February			
09:00~16:00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PPC Meeting	Room I + II + III	Rick incicome&Zhuang Weimin
09:00~16:00	Education Commission meeting	Room XO	Kate ennsen&Fernando Ramos
13:30~13:30	Lunch		
16:00~18:00	Joint education and practice sub committee	Room I + II + III	Nikos Fintikakis
Wednesday 11 February			
10:00~13:00	Work programmes Coordination meeting	Room XO	Thomas Vonier
09:00~13:00	PPC Meeting	Room I + II + III	Rick incicome&Zhuang Weimin
13:00~14:00	Lunch		
14:00~16:00	UIA Bureau meeting	Room I + II + III	Esa Mohamed
14:00~17:00	International Competitions Commission ICC Meeting	Room UIA	Tomaz Kancler&Jezy Grochulski
16:00~18:00	Sponsorship committee	Room TBC	Thomas Vonier
Thursday 12 February			
09:00~13:00	126th UIA Council Session 1	Room I + II + III	Esa Mohamed
13:00~14:00	Lunch		
14:00~17:30	126th UIA Council Session 2	Room I + II + III	
17:30~19:00	Presentation of R+T Fair+Cocktail		
Friday 13th February			
09:00~13:00	126th UIA Council Session3	Room I + II + III	Esa Mohamed
13:00~14:00	Lunch		
14:00~18:00	International meeting	Room I + II + III	Esa Mohamed
Saturday 14th February			
	Departure		



회의 장소

UIA 126차 이사회 보고서

이근창(국제위원회 자문위원, UIA4지역 이사)

국제건축사연맹(UIA) 126차 이사회가 2015년 2월 12, 13일 양일간에 걸쳐 UIA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 몽빠르나스타워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새로이 선출된 회장 ESA Mohamed를 포함한 임원과 이사전원이 참석하였다.

· 논의된 주요 안건과 회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첫날(2월 12일)

-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각자의 소개가 있었고 논의될 안건과 전 회의록(더반 총회 이후 간략히 진행한 이사회)이 수정 없이 통과 되었다.
- 회장의 약 5개월간의 활동보고에서 6개국을 순방했으며, 말레이시아, 부다페스트, 다카에서 TV 인터뷰를 통해 UIA의 활동 내용을 홍보했고 이러한 국제행사와 회원국행사에 참여하여 UIA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UIA를 탈퇴한 독일을 포함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재가입 설득, archi. 도메인 사용 확대, Work Program의 활성화 등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발표했다.
- 지역 부회장 보고에서 1지역 부회장인 영국의 David Falla는 2

명의 이사를 보충했으며, 지역내 모든 자료를 Web site에 올리는 것과 회원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중점사업으로 발표했다. 2지역 부회장인 터키의 Deniz Incedayi는 젊은 건축사모임과 Work Program에 참여할 건축사들을 발굴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3지역 부회장인 멕시코의 Carlos Alyarez는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격차가 많은 남· 북아메리카의 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회비를 미납한 회원국에게 납부토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4지역 부회장인 필리핀 Yolanda Reyes는 UIA를 4지역 내의 통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하겠으며, 각 위원회와 Work Programs에 활동할 건축사들을 회원국을 통해 추천을 받아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5지역 부회장인 수단의 Hayder Ali는 지역건축사 조직인 AUA와 연계하여 아프리카 내 건축사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 사무총장인 미국 Thomas Vonier는 Work Program 활성화 방안, Web Site 개선사업, 각 위원회의 연계와 필요한 위원회의 개발 등을 역점 사업으로 보고했다.
- 재무관인 Fabian Llisterri는 현재 19개 회원국의 미납회비는 206,000유로이고, 3년 연속 미납한 8개국을 활동금지 회원국(Inactive Member)이 되며, 2014년까지 미납이 3년이 되는 4개 회원국은 2015년 부터는 권리정지 회원이 됨을 보고했다. 2014년 수입은 약 843,000유로, 지출은 837,000유로임을 발표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특히 수입이 약 30% 격감



공동위원장, UIA 회장, 사무총장

했으며 이는 이탈리아, 멕시코 등 주요 회원국의 회비미납과 차기 및 차차기 건축대회 유치도시인 서울과 리오의 회비 미납도 수입부족의 원인임을 보고했다. 또한 더반 총회시 병행해서 개최된 행사인 어린이를 위한 Work Program과 PPC 회의비용, Disaster Otherwise 프로그램 진행 비용이 추가로 요청되었음이 보고되었다. 2015-2017년도 회비는 국제경제지수의 변동에 따라 새로이 산정하였으며, 회비가 감소되는 국가는 한국, 일본, 그리스를 포함해 11개국이 증가하는 회원국의 77개국이며, 한국은 15,239유로에서 14,925유로로 일본은 42,607유로에서 38,881유로로 감소하게 된다. 참고: 회비 산정방식은 국제경제지표를 구매력평가, PPP(Practical Purchasing Power Parity)방식으로 하며, 회비의 감소는 그 나라의 구매력 평가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5년 예산은 회원국회비 610,000유로를 포함하여 993,215유로, 지출은 예비비 5,000유로를 포함 993,215유로가 이사회를 통과하였다.
- 각 위원회 보고는 교육위원회는 미국의 KATE Schwennsen이 실무위원회는 미국의 Rick, Linclcome이 발표하였다. 보고 내용은 상기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 보고서에 있다.
- 국제설계경기위원회에서는 시스템이 공공이외에 각 회원국의 Developer들의 사용을 위해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며, 2014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중국, 러시아, 터키에서 UNESCO-UIA Competition을 활용 하여 진행한 바 있으며,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주시기를 희망했다.
- 새로 설립된 교육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합동위원회 보고에서는 그 필요성과 연계성 그리고 공통관심사가 함께 논의 보고되었다. 특히 국제인증이 필요한 건축교육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체계의 정립과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한 실질적 Guideline이 협상 창구인 정부 Channel과의 원활한 관계 정립을 요구하였다.
- 이어 정관개정 논의에서는 현재 5개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각 지역의 재분할방안이 실질적 지역건축사협의체의 활동과 결

맞지 않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4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실질적인 중동국가 Region IV로 분류되어 지역적, 문화적으로 교류가 어려워 조정을 요구하였고, 유럽의 Region I, II 역시 유럽연합 건축사회(ACE), MASA, BAUA, CIAIP, Visegrad 4, 등 지역조직과 혼재되어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전임회장단에서 이 문제는 수차례 논의 되었으나 UIA가 정부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임으로 재조정, 분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이외 다른 정관개정 내용은 없었다.

- 회장은 새로이 발족한 젊은 건축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각 지역 이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래 건축계의 희망을 키우자고 결의했다. 사무총장인 발표한 Work Program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Program간 그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담당 Director들은 조정해주고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세부 Program을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자연재해, 재난 등에 대한 내용은 그 진행과 결과를 상세히 서류화 하여 좋은 학습이 되도록 Web Site에 등재 하는 것으로 하였다. Red Cross, UN-Habitat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단체의 특수성을 잘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2개 Program의 담당 Director가 발표되었고, 4지역에서는 Responsible Architecture에 tm리랑카 Jayanta Perera, Cultural Identity-Architecture Heritage에 한국 조인숙 위원과 중국 LIU Kecheng, Public Health에 호주의 Warren Kerr가 담당하게 된다.

둘째날(2월 13일)

- UN 기후변화 위원회가 2015.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하는 COP(Conference of Party) 21 참석에 대한 협의에서는 2014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있었던 행사에서의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국가의 특수성에 대해 방글라데시 Ishitiaque Titos 발표가 있었고 행사의 참석자가 각국의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사업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건축사 고유단체의 전문성을 잘 고려하여 전임 회장인 프랑스 Albert Dubler가 정리하여 참석하기로 하였다.
 - 각 국제기구와의 협약내용 보고에서는 UN-Habitat와는 MOU를 2013년 9월에 체결했으며, 주요 파트너이고 UN 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Observer Status로서 그들의 주요회의 COP 15, 16, 17 R10+20에 회장과 관련된 회원국에서 참여한 바 있다. 이외 여러 UNESCO관련 단체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 지역건축사 협회와는 유럽연합협회(ACE) 아시아건축사연합회(ARCASIA), 아프리카건축사연합회(AUA), 환태평양건축사연합회(FPAA/FAPA), 유라시아건축사연합회(MASA)와



회의장면



공동위원장 Rick Lincicome



회의 장면(위원장보고)

MOU를 맺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외 국제건축관련단체인 영연방건축사연합회(CAA), 국제 포르투갈어사용국건축연합회(CIALP), 아랍건축사협회(OAA), 지중해 건축사연합회(UMAR), 4개국건축사회(VISEGRAD 4) 와도 합의를 교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파트너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국제관련단체는 우리나라 건축학인증원이 소속된 Canberra Accord, DOCOMOMO International, 비상건축사 기구(Emergency Architects Foundation),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인 국제건설링 엔지니어연합회(FIDIC), ICOMOS, 국제조경건축사연합회(IFLA) 등이 있다. 이외 기구와는 Active House Alliance, WGBC가 있으며, 행정협업은 archi. 도메인 회사인 Startingdot와 Mido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

- UIA 2014 더반 대회보고는 남아공건축사협회 회장 Sindile Nkonyama, 실행 위원장인 Hassan Asmal, 사무총장 Karen Eicker, 행정담당 Alene Naidoo가 차례로 발표하였다. 중요 내용으로는 주요행사인 총회와 대회는 더반 컨벤션센터에서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있었으며, 총 참석자는 국·내외를 포함 4,200여명이다.
- 주제는 Architecture Otherwise 이었고 건축과 관련된 타분야인 환경, 도시개발, 도시재생생산자, 학계, 학생, 정부관계자, 정책결정자 그리고 시인과 여러 정보매체가 논의내용을 공유하였다. 특히 Resilience, Ecology and Values의 부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어린이들을 논의장으로 끌어내어 전시, 필름, 관광, 소통이 되도록 한 것은 아주 큰 수확이라고 발표했다.
- 2017 서울 대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조정이사회의 결과와 지역 추천Reporters 선정, 2015년 계획순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조정이사회에서 잠정 결정한 개최일자인 2017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가 이슬람 연례기념일(Eid Al Adha)과 중복되었으나 이사전원 찬성으로 확정하였다.
- 차기 조정이사회는 UIA 임원일정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를 FIKA에 요청하였다.
- 각 지역에서 추천하는 Reporter의 자격과 활동내용을 설명하

였고, 각 지역에서 가능한 차기 조정이사회 전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eporter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계약조건과 SOC회의를 통해 통보하기로 하였다.

- 2015년 계획보고에서는 법인설립, 명예위원회구성, 학술위원회구성, 행사추진업체선정, 소요자금 모금 등, 보고 내용이 수정 없이 이사회를 통과하였다.
- 2020 리오 건축대회는 차기 이사회를 11월경 페루 리마에서 개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간략히 보고하고 회장의 폐회 인사로 이사회를 마쳤다.

UIA 실무분과위원회 (PPC) 회의

신춘규 자문위원(국제위원회 자문위원, ARCASIA PPC위원장)
오동희(국제위원회 위원장)

실무분과위원회의 참석자와 회의 내용

참석자 현황 : 실무분과위원회는 각 국의 건축사들이 실무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지침을 만들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의 Rick Lincicome과 중국의 Zhang Wei Min이 공동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실무분과위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을 해왔다. 일부의 대표는 장기간 같은 이슈에 공을 들이며 연속적으로 참여해왔으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의 대표들은 지속적으로 참가자가 변화하며 회의의 연속성을 해쳐와 최근에 와서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사람이 최소 3년 이상 참석을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5지역 18개국에서 24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이 중 13명이 새로운 위원으로 환영은 하나 회의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로 시작되었다.



4지역 위원들 기념사진

각 지역, 각 국의 참가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 서유럽지역(4명)

이샤벨 모로우, Isabelle Moreau, 프랑스
리오넬 칼리, Lionel Carli, 프랑스
알베르 드블러, Albert Dubler, 프랑스, 직전 UIA 회장
이안 프리트차드, Ian Pritchard, 영국, ACE 사무총장

2 지역: 동유럽/러시아(4명)

엘리나 그레고르예바, Elena Grigoryeba, 러시아
블라드 가이브론스키, Vlad Gaivoronschi, 루마니아
니코스 핀티카키스, Nikos Fintikakis, 그리스
조우지 파자카스, Gyorgy Fazakas, 헝가리

3 지역: 북남미지역(2명)

스테판 너트, Stephen Nutt, 미국
릭 린시콤, Rick Lincicome, 미국, 현 실무분과 공동위원장

4 지역: 아시아/호주(8명)

웨이민 장, Weimin Zhang, 중국, 현 실무분과 공동위원장
이시티아크 자히르, Ishitiaque Zahir, 방글라데시
로스 크락, Ross Clark, 호주
디비야 쿠쉬, Divya Kush, 인도
페이 잉 탄, Pei Ing Tan, 말레이시아
오 동희, 한국, 국제위원장
신 춘규, 한국, 아카시아 실무분과위원장
샤합 가니 칸, Shahab Ghani Khan, 파키스탄

5 지역: 아프리카 지역(4명)

유진 버나드, Eugene Bernard, 남아공
알리 헤이더, Ali Hayder, 수단
비니쉬 신타람, Vinesh Chintaram, 모로시우스
자신타 비샹가, Jacinta Bishanga, 우간다

기타: UIA 본부 (2명)

UIA 회장, 예사 모하메드, Esa Mohamed, 말레이시아
UIA 사무총장, 토마스 보니어, Thomas Vonier, 미국

실무분과위원회의 회의 내용

실무분과위원회는 다음의 네 개의 중요한 목표를 갖는다.

1. 실무기준의 유지, Maintain the Aspirational Standards
2. 기준의 실행, Implementation of the Accord
3. 건축사의 이동성의 확보, Achieving Global Architect Mobility
4. 형평성의 증진, Promote Architect Equity

이 네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회의 하루 전인 9일(월) 오후 준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갖고 준비된 안건 등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토의하고 10일부터 이틀 동안 15개의 항목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이번 회의의 특이사항은 그동안 토의해온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출판하고 각 회원국에서 도움이 되도록 배포를 할 것인가였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각 이슈별로 담당자가 분배되어 준비해온 것들을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되면 채택하고 채택된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된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UIA 실무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이 되게 된다.

이틀 동안 논의된 안건과 각 안건별 담당자, 그리고 발표내용과 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날(2/10, 수)

0. 위원장의 인사말, 참석자의 자기소개

1. UIA 신임회장 및 사무총장의 인사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Esa Mohamed신임회장은 UIA PPC가 건축과 관련된 국제표준, 건축의 질적 평등성에 기여하고 건축서비스의 이동성 및 건축사의 국가간 협력에 대한 제도적인 진전에 이르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UIA와 지역의 PPC 협력에 대하여도 관심을 표하였다.



중식시간 (오동희위원장 + 조인숙 위원)

2. 26차 총회 및 2014년 인수인계 사항에 대한 회의록 승인

- 더반대회에서 3개의 가이드라인, 7개의 work program과 2개의 실무노트가 2017년 대회까지 계속되도록 승인 받음.

3.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 활동보고

3.1 위원규정 및 Work Program의 담당자

- 참석자 가운데 새로운 위원이 13명으로 거의 과반수에 해당함.
- 안전별 담당자가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새로운 담당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임.

3.2 2014~2017년의 회의일정

- 2017년 UIA서울대회를 겨냥한 work program의 마무리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는 것을 2016년 11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매년 2월과 11월, 2회에 걸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필요시 정책을 결정해 갈 소그룹(policy Group)을 만들고 특히 회의의 특성상 자주 모일 수 없는 것을 감안해 버추얼 회의를 통해 자료공유, 의견 조율 및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함.
- 모리셔스와 방글라데시에서 적당한 시기에 실무분과위원회를 호스트하는 것을 신청함

3.3 더반대회 이후의 회원국 지원활동

-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위원회에서 마련한 실무지침을 각 국에 맞도록 재조정 등

4. 건축의 질, Albert Dubler(프랑스, UIA 전회장),

Vlad Gaivoronschi(루마니아)

- ACE, France, Malaysia로부터 건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육성시스템 등에 대한 각국의 상황이 간략하게 소개되었고 미국의 경우 “Top10 Design of the Year”, 한국의 “Design City”정책에 의해 탄생한 DDP의 사례 등이 소개됨. 따라서 어렵지만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논의함.
- 건축의 질에 있어 높은 수준의 건축과 보통의 수준의 건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만 특히 건축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수준의 건축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스타 건축사에 의해 판단되는 질이나 또는 그 반대로 지극히 낮은 질의 건축으로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가 없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건축의 질에 대한 결정요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적 이익을 전제로 하고 특히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어야하며, 목록 수립, 연구를 통한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도출해야 함을 논의함. 각국은 이를 위한 사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받음.

5. 건축서비스의 아웃소싱, Balbir Verma, 인도 (2011-2014),

Dyvia Kush, 인도

- 그동안 준비해오던 인도의 발비어가 참석을 못함으로 인도의 디비아가 대신 맡기로 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들을 인수받기로 함.
- 먼저 아웃소싱에 대한 정의와 각국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아웃소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됨. 한편 아웃소싱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함께 논의됨.
- 문제점으로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 건축의 질적 수준의 저하, 그리고 아웃소싱으로 인한 건축설계 산업구조의 왜곡 등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로 건축기술 발전의 저해, 젊은 건축사의 일의 기회 축소 등의 현상이 발생함.
- 그러나 스타건축사와 지역건축사와의 협력에 있어 아웃소싱을 통해 건축디자인 및 기술의 발전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

6. BIM, Shinjiro Wachi(일본) and Raul Martins(브라질), 불참

- 브라질 라울의 요약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에 의해 추천된 본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BIM의 보급에 기여했으나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기준이 계속 제공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없이는 활용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음. 따라서 면허갱신을 위한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BIM교육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건축사들은 BIM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고비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UIA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하여금 각국의 여건에 따른 가격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공급을 이루도록 권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UIA는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BIM기술의 호환성 및 범용적 실행을 위하여 개방적이고 비 독점적인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UIA의 BIM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상황과악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7. 전문성의 Integrity와 표절,

Tillman 과 Sven(독일)이 빠짐으로 Ian Pritchard(영국)과 Lionel Carli(프랑스)로 대체하기로 함

- 건축사의 작품은 표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각



4지역대표단 회의



중식시간(4지역 부회장인 올란다(필)과 대화)

국의 법체제에서 보호 받아야 함. 이를 위한 UIA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8. Use of unpaid interns, Rick Lincicome(미국)

- 인턴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사례에 따른 정의를 논의함. 일부 국가에서는 인턴의 정의를 실습하는 학생으로, 또 일부 국가에서는 졸업하고 건축사시험을 보기 전의 실무수련 중의 건축사보 등을 의미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에 대한 사례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일부 인턴을 채용하며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함.
-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고 2016년까지 정리하여 필요하면 UIA 건축사윤리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9. 교육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Joint Subcommittee(JCEP), Nikos Fintikakis(그리스)

- 두 위원회의 안건 중 인턴 및 계속교육 등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중복이 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소분과위임.
- 2017년 대회에 앞서 조인트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10. 서울대회를 위한 세미나, 전시부스, 후원 등의 준비

- 더반대회에서는 일부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전시, 홍보를 하였음에 대해 설명함.
- 서울대회도 전시 및 세미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부스 디자인, 필요한 자금, 스폰서에 대한 준비를 요청함.
- UIA 각 분과위와 work program들을 함께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 서울대회 조직위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약속함.

둘째날(2/11, 수요일)

11. 건축사의 무료서비스- 윤리규정, Elena Grigoryeva(러시아)

- 건축사의 대가 없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정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 건축을 통한 봉사활동 예를 들면 재해 시의 건축사의 봉사, 적십자, 월드비전 등의 국제적인 봉사 등으로 무료서비스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
- 건축주의 과도한 기획설계의 무료서비스 요구, 현상설계 참가비용에 대한 무료서비스 요구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논의함.
- 따라서 UIA는 각 국의 제도와 사례를 연구를 통해 UIA레벨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12. 분쟁의 조정(2009년 의제 4의 업데이트),

Eugene Bernard(남아공)

- 건축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분쟁 및 건축사와 협업자 또는 시공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13. 건축에 있어서의 성의 균등성(Gender Equity),

Tan Pei Ing(말레이시아), Ross Clark(호주)

- 말레이시아 및 호주의 사례를 통해 남녀 간의 성에 따른 기회, 보수, 교육 등에 대한 불평등을 설명하고 건축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안의 제시가 요청됨을 발표함.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대학교육에서 여성건축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여성건축인력이 극감하는 현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UIA는 극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4. 컴퓨터 실무(2004년 의제1)에 대한 업데이트,

BIM 팀이 같이 하기로 함

15. ITG(Implementation Task Group)의 리더 Esa Mohamed가 회장이 되므로 인한 리더 교체논의

15.1 건축사의 이동성, Ishiateque Zahir(방글라데시)

- 건축실무에서의 모든 delivery system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해외 스타건축사들을 통해 실무에 대한 내용을 조사중임.

15.2 UIA 회원국의 데이터베이스, Stephen Nutt(미국)

- 현재 125개국의 회원국 중 86개국만 데이터를 올림.
- 올려진 데이터가 언제 업데이트된 것인지 확실치 않음.
- UIA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유효한 자료로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임

15.3 출판과 유포를 위한 기존 서류의 검토와 가이드라인, 신춘규(한국)

- 한국의 등록원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작은 책자가 상당히 좋은 사례임(Rick Lincicome).
- 이제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기준들을 알릴 수 있는 책자가 online과 offline 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16. 마무리 커멘트 및 그룹사진

결론 및 앞으로의 우리 협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은 각 지역별 국가별 환경을 이해하며 건축 실무에서 공공성의 확보와 건축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있다.

UIA 실무분과위원회의 참석은 우리나라 실무 기준을 국제화하며 앞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크게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아직 우리가 부족한 건축에 있어서의 표절 및 분쟁조정 방법 등의 선진국 사례를 얻을 수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앞서있는 IT 및 BIM의 우수성에 대해 해외시장에 알릴 수가 있으며, 셋째, UIA 데이터 베이스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형평성을 통해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실무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볼 때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을 홍보하고 우리 건축사들에게 불리한 기준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며, 한편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기준들을 홍보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해외시장의 진출에 용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실무위원회에 십여 년 간 참여해왔다. 그러나 담당위원의 참여에 잦은 변동이 있어 지속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랜 실무를 통해 한국의 건축 환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 건축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건축사가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참여하고 우리 건축 환경에 도움이 되는 work program을 발굴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한다.(cgs 150221)

첨부

1. 회의 관련 사진
2. 각 종 협의 및 발표자료

☞ 회의 안건 및 일정, 모든 발표자료 등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회원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회원은 사무국 국제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종료후 그룹사진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해외건축탐방 건축기행

Report about visiting foreign architectures by the 'awardee' in 2014 Korean Architecture Awards, planned building section

글. 대상 - 박정인_Park, Jung-in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최우수상 - 조하늘_Cho, Ha-neul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노유리_Noh, You-lee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연권모_Yeon, Kwan-mo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최우수상 - 조대진_Cho, dae-jin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
최우수상 - 박경은_Park, Kyung-eun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김한빛_Kim, Han-vit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김파_Kim, Pa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2014년 12월 5일, 건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행을 떠나게 되었다. 2박3일에 걸쳐 항주, Ningbo, 상해를 여행하였다.

주변 지역적 맥락과 상반된 스케일의 사용, Ningbo museum of art

12월 5일 아침 9시, 함께 기행을 떠나는 심사위원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타 학교 수상자들과 집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푸둥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4시간 정도 Ningbo museum of art로 향했다.



닝보 미술관



얇은 콘크리트 캐노피와 나무재질로 된 입구



미술관 내부 문

비록 촉박한 일정 때문에 시간이 짧아 1시간정도 답사를 진행해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했지만 도착 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Ningbo 미술관의 모습에 이런 고민도 잠시 잊은 채 이미 빠져들었다. 우리에게 나타난 미술관은 시각적으로 크나큰 충격이었다. 평소에 우리가 학교 스튜디오에 앉아 고민하고 생각하던 익숙한 스케일감과는 너무도 달랐다. 이게 바로 중국대륙스케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술관의 크기는 엄청 방대했다. 우리는 큰 램프를 따라 입구에 도착했다. 얇은 콘크리트 canopy와 나무재질로 된 입구의 크기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입구 문을 열어 들어가는 느낌은 마치 우리가 작은 난쟁이로 변해있는 듯했다. 미술관 내부도 역시 나쁘지 않았다. 미술전시 작품들은 큰 벽에 사람의 시야에 들어올 만한 높이까지 배치되어 있었고 높은 층고 때문에 내벽에는 여백공간이 많았다. 사실 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미술작품보다는 건물디자인에 오히려 눈길이 더 많이 갔다. 그렇게 듣고만 왔던 건축사 왕슈의 대단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비평적 지역주의와 폐자재 사용에 대한 철학적 의미 에 대해... Ningbo history museum

우리는 사실 이번 2014한국건축문화대상에 제출하기 위한 구의 취수 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건물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간자체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공간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작업에 대해서 비평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이슈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공간'은 없었다. 현재 많은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21세기에 많은 건축사들이 공간감이 좋다 혹은 좋지 않다라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던 까닭인지라 폐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왕슈에 의해 디자인된 건물들(특히 Ningbo history museum에서 부각되었던 부분이다)이 우리에게 더욱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현대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움을 느꼈던 시점은 한 건축사가 하나의 건물 혹은 지역을 계획하고 완공하고 난 후 그 땅을 떠

났을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바로 새로운 건물이 주변 환경에 대해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집중해 보는 이야기인데, 마치 새 옷을 사서 입고 그 옷이 나의 몸에 적응하기까지 Characterizing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이 새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사이지만, 그 건물이 주변 맥락에 적응하기까지 발생하는 상황들... 바로 이 상황들이 장소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발생하는 상황이 좋던 나쁘던 간에 말이다. 여기서 주변 환경이라고 해서 단순히 환경 environment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milieu를 의미한다. Milieu의 단어부터 살펴보면 mil(middle) + lieu(place), 장소의 중앙, 즉, 단순히 주변환경environment의 의미를 넘어서 한 대상을 존재하게 하고 특성을 갖게 하는 주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닝보 역사 박물관



폐자재 입면 디테일



폐자재와 시멘트 접합 디테일



폐자재 입면과 다양한 패턴의 창

서두가 조금 길었지만 Ningbo history museum을 포함한 왕슈의 여러 건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폐자재 사용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왕슈의 폐자재입면들의 폐자재들이 어느 건물들을 철거하면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는 아직 추적해보진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없어진 지역이 다시 뮤지엄과 같은 다른 의미로 재현된, 즉, 새로운 것의 사용이 아닌 기존의 것의 재사용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왕슈의 이러한 작업들은 1997년 항저우에 Amateur Architecture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이전 몇 년간은 건축현장에서 직접 일하여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데 몰두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시대의 건축사들이 모두들 서구화를 따라갔을 때 그의 작업은 언제나 중국의 전통과 문화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근대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낱아빠진 문화적 과거를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왕슈는 과감히 자기 입장을 취한 것이다.



김파, 김한빛, 박경은(인하대)

둘째 날인 12월 6일 오전에는 중국 저장성 Ningbo 은주공원(鄞州公園)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오산방을 둘러보았다. 오산방은 은주공원 정중앙에 위치한 호수를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1개의 갤러리, 2개의 찻집, 1개의 카페, 1개의 관리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왕



관리동



찻집

슈는 오산방을 통해서 상산캠퍼스 2기 전에 건축적 실험을 하였는데, 공간에 대한 실험보다는 재료의 대한 실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갤러리는 폐건축자재인 청전, 청와, 철근과 노출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찻집1은 콘크리트가 주를 이루고 호수 쪽에는 청전이 쓰인 매스가 있다. 찻집2는 흙벽과 철재, 관리동에는 청전과 노출콘크리트, 카페에는 노출콘크리트가 주로 쓰였다.



찻집2



카페



닝보 미술관

토벽, 청와, 청전은 닝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재료인데, 폐건축자로 재활용되면서 재료 자체가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한 현대성을 지닌 재료인 콘크리트와 철재를 사용하여 현재와 역사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비판적 지역주의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세계화된 기술사용의 신중성, 구축성이 고려가 잘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리동에서 청전을 쌓는 방식에 있어 대나무 매트 패턴으로 쌓아올린 것에서는 똑같은 패턴에서 대나무와 다른 감각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찻집1에서 옛 창살을 건물 전체로 확장시켜 외벽과 천장을 만들어 지역 풍토를 이용한 점도 보이고 철근 루버와 콘크리트 루버, 갤러리의 고측창 등 다양한 창들을 이용한 대지·맥락·빛과 기후에 대한 고려도 느껴진다.

하지만 장소·형태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우선 장소·형태는 장소성과 그에 따른 형태를 의미한다. 장소성이란 장소의 기후, 지형 등 자연환경과 전통사상, 제도, 풍습이 포함된 의미인데, 오산방에 적용된 장소성은 거시적인 관점의 닝보에 대한 장소성이지만 미시적 관점의 은주 공원에 대한 장소성은 아닌듯하다.

은주 공원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이고, 공원 안에 공룡이 전시된 곳 주변에서 그러한 느낌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은주 공원에 대한 장소성은 짧은 역사성과 인공성으로 인하여 왕슈의 지역적 비판주의를 실험하기에는 어울리는 장소가 아닌 듯하였다. 그리고 장소성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오산방은 그렇지 않다. 오산방은 실험에 대한 목적이 강한 기획적인 면이 강한 건물들이다. 오산방이 각 건물마다 재료와 형태가 다르지만 그것은 그 각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각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비판적 지역주의의 주안점들을 균형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각 건물이 구축성에 너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잃은 느낌이 강하였다.

또한 역사성이 너무 과거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아쉬웠다. 왕슈가 폐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의도는 과거에 대한 역사성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현재에 재사용해서 건축물을 형성하고 형성된 건물이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기능하는 지속가능성도 포함되어있다고 본다. 하지만 오산방의 잘못된 관리 실태를 보면 지속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수리 때문인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더욱 많았고 찻집의 경우 성의 없게 다시 칠해진 페인트도 그렇지만 그 페인트가 많이 더럽혀져 있어 보기 안 좋을 정도였다. 찻집2의 경우는 원래 붙어있지 않았던 입구의 도자기들이 많이 떨어져있어 건물의 첫인상이 낡게 느껴졌다.

오래된 미래, 나만의 우리라는 주제를 갖는 이번 건축문화대상에서 왕슈 건물에 대한 기행은 적절했다. 왕슈의 건물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갑작스럽게 들렸던 Red town이나 1933도 대단한 볼거리였다. 그것들은 결국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속가능성과 리노베이션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잡지와 인터넷의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이번 여행은 상당히 뜻 깊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행을 통해 많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었고, 졸업작품 이후에 생겼던 건축적 고민과 침체감에 대한 회복도



조대진(서울시립대)

많이 되었다. 건축을 새로운 견지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 중국으로 답사를 가기 전, 우리는 왕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답사 후 생각해보니 어떠한 공간을 보아도 그만의 건축관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아직 부족한 건축학도이기에 그의 스타일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생각들로 만들어진 공간이 주는 느낌이 생생했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Ningbo Art Museum, Ningbo History Museum 그리고 Oshanfang 지나 왕슈의 마지막 답사지 항저우 상산캠퍼스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버스의 창문 밖에 보이는 기숙사 건물에서부터 왕슈의 냄새가 나는 건축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버스에 내려 캠퍼스를 둘러보았을 때는 오산방에서 '왜 건물들이 디테일하지 않고 실험적인 부분들이 많을까?'라는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낡은 벽돌들과 기와들, 천장의 곡선지붕, 나무로 되어있는 파사드와 창문, 불규칙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뚫린 창문들, 그 안의 천장과 슬라브가 더욱 튀어나와 만들어지는 높으면서도 좁은 공간 그리고 그로 인해 연출되는 개방적인 느낌들이 여태까지 보아왔던 왕슈의 건축물들을 캠퍼스 안에 한 번에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건물들을 보면 건물 스케일 자체가 학생, 교수들이 잘 운영하고 느낄 수 있는 스케일이었던 것 같고 건물들과 길들의 관계들도 재미있게 이어지고 흐르는 것이 좋은 느낌을 주었다. 넓은 캠퍼스를 하루만에 둘러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모든 건물을 꼼꼼히 둘러 볼 수 없었지만 그 중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았던 건물들을 소개하고자한다.



체육관, 복도

체육관과 연결다리

캠퍼스에 진입하여 우리가 들어간 곳은 커다란 체육관이 있는 건물이다. 이곳은 들어갔을 때 건물의 제일 외곽에 내부이면서 외부인 듯한 복도 공간을 지붕과 외벽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공간은 이동공간이 되면서 외부와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낡은 벽돌로 뚫려있는 창문, 여러 겹으로 되어있는 한옥의 처마같은 부

분들에 의해 외부로 시선을 향하게 하며 채광은 물론이고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체육관의 복도를 따라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옆 건물들과 연결되어있는 다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다리에서는 오산방에서 보았던 건물의 밑 부분이 기울어져있는 기둥들을 볼 수가 있다.



중정의 목재 창문



반내외부공간과 계단

그 다리를 따라 가본 옆 건물은 강의실 곳곳에 그림들과 마네킵 등의 작품들이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대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건물의 파사드는 나무로 되어있고 각 창문들이 열고, 닫음으로써 가변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던 지붕과 외벽이 만드는 복도와 같은 반내외부 공간, 구조에 쓰인 콘크리트 그리고 낡은 벽돌과 기와를 사용한 지붕곡선들이 곳곳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강의실의 문들이 2010년 상하이엑스포에서 왕슈가 내놓았던 파빌리온의 개구부의 모양과 흡사하게 되어있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왕슈의 스타일이 느껴졌다.



반내외부 공간과 브릿지



반내외부 공간과 브릿지

다음으로 도착한 건물은 미대건물 앞에 있는 ㄴ자에 획을 2개를 추가한 듯한 실습관이다. 이곳에서도 지붕과 외벽이 만드는 반내외부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 공간에서부터 건물외부에 대나무 난간을 둘러 이동공간을 만들었다. 위아래 반복되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공간을 따라 창문들도 오르락내리락하며 리듬적인 부분이 재미있었고 이러한 사선들에 의해 복잡한 공간들이 영겨 있어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반면에 내부는 부분적으로 뚫려있는 매스들과 개구부들에 의해 빛이 들어오지만 어두운 곳들이 많아 침착하다 못해 음침한 부분들도 있었다.

이 건물에서 나와 걸다보니 캠퍼스의 호수와 함께 있는 넓은 마당 뒤로 왕슈의 건축물들이 이곳저곳 놓여 있었다. 여러 건물들을

지나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우리 모두 보고 싶어하던 바로 건축학과가 있는 건물이었다. 첫번째 건물의 외부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파빌리온에서 보았던 불규칙한 모양의 개구부와 땀 뚫린 천창으로 환한 내부의 큰 아트리움이 있어 개방적인 느낌이 강하며 그 공간 내부에 하나의 다른 매스가 있다. 연결된 길을 따라 가본 두 번째 건축학과 건물은 커다란 답답한 매스를 2개의 중정으로 시원하게 뚫어놓은 '8자'모양의 건물이다. 그로인해 내향적인 내부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건축학과와 내부의 분위기는 주말에도 열심히 설계실에서 설계하는 건축학도들로 생동감 있었다.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야경)

캠퍼스를 다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정문의 정면에 있는 방문자센터로 향했다. 이 건물은 흙벽에 목재트러스가 복잡하게 짜여있는 지붕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었고 그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에 또한 왕슈의 스타일들이 들어가 있어 복잡한 공간체계를 가지면서도 다양한 내·외부공간들이 잘 나누어져 있어 게스트하우스, 티룸, 자전거대여소, 레스토랑 등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려 나머지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자전거를 타며 옆을 스쳐지나가는 왕슈의 다양한 건물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방문자 센터에서 더 깊숙이 캠퍼스로 들어갔을 때에도 앞쪽에서와 같이 낡은 벽돌과 기와들이 쌓여있는 왕슈의 언어로 설계된 건물들이 있었고 더더욱 캠퍼스의 분위기가 통일성이 있게 느껴졌다. 또한 각 건물들이 캠퍼스



조하늘, 노유리, 연권모(충북대)_오른쪽부터

중앙을 둘러싸며 배치되어있어 자전거를 타고 하나의 길을 따라가면서 캠퍼스 전체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항저우 상산캠퍼스와 그 전의 왕슈의 건축물들의 답사를 마치면서 이제는 딱 보면 왕슈건축물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왕슈는 스타일이 뚜렷하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이 전하려는 지역성에 대한 메시지가 진한 색을 띄고 있으며 이는 그의 스타일이 되어 시대와 다른 흐름을 탄다고 해도 남들이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대담한 건축사 인듯하다. 이러한 부분이 나를 포함하여 많은 건축학도들에게 많은 동기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틀 동안 Ningbo와 Hangzhou를 둘러보며 왕슈의 건축을 감상했고,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계획을 약간 변경하여 상하이 시내를 돌아보았다. 상하이는 2010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기업유치는 물론 디자인 인력양성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창의적인 디자인 산업의 부흥을 위해 상해 곳곳에 많은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대표작 몇 곳과 상하이 도시를 둘러보았다.



홍방red town 전경

먼저 '홍방red town'으로 향했다. 적벽돌로 된 건물들이 많아서 홍방이라고 불리는 건 아닐까. 홍방은 1989년까지 철강을 생산하던 철강산업단지가 2006년 예술단지로 변신한 곳이다. 상하이에 제법 예술단지가 많은데, 다른 예술단지와는 차별되게 조형작품 위주로 전시하고 있다. 중간에 위치한 야외공간에는 푸른 잔디와 함께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전시품을 감상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도 좋았다. 중국인들이 여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그런 문화인 것일까? 오산방에서 봤던 것처럼 공원이나 광장에 나와서 홀로 혹은 단체로 춤을 추거나 수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그럴만한 공원이 많은 상해가 좀 부러웠다.

중앙에 위치한 공원을 중심으로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다양한 브랜드의 아카데미 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예전 건물들을 대부분 살려서 활용한 것이 인상 깊었다. 넓은 공원을 지나 건물 뒤로 가니 골목길과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이 보여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큰 건물들만 남기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건물들까지도 남겨놓은 모습이 근래의 무분별한 개발과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생각되었다.



와이탄에서 바라본 푸동의 고층건물들

점심식사 후 ‘와이탄’으로 향했다. 와이탄은 푸동의 고층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상하이를 가로지르는 강을 배경으로 근대건축물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이루는 경관이 감탄을 자아낸다. 특이했던 점은 구 형태의 건물이 많았다는 것이다. 수직의 네모반듯한 건물들만 있는 것보다는 구 형태도 섞여 있는 것이 다양하다 싶지만 세련되어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도축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극단의 변신을 보여준 ‘1933 라오창팡’으로 향했다. 1933년 제국주의 시절 영국건축사 C.H Stablefold가 설계한 건물로,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 당시로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었다. 1950년대까지 도축장이었지만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약회사 건물로 사용됐다. 그 이후 방치되다 지금의 모습이라는데 80년이나 지났음에도 외관과 기둥이 고풍스럽고 멋있었다. 지금은 완벽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에 성공했지만, 건물 내부에는 아직 도축통로, 가축우리, 저장창고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시대의 도축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1933 라오창팡 외관



1933라오창팡 내부

외부에서 보면 직사각형의 건물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속이 비어있는 독특한 양식이다. 이는 도축장 시설에 필수적인 냉방효과를 위한 것으로,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우선 하늘이 보이고 이동통로와 건물 사이의 경사로, 다리, 교차로가 정신없이 얹혀져 있어 마치 미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팔 모양의 기둥, 도축되는 소가 끌려갔던 우도,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만든 바람길도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소들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던 다리는 모두 넓이가 다른데, 그 이유는 크기가 다른 소들이 각각 크기에 맞는 다리를 건너게 함으로써 크기별로 분류하는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했다. 난간이 높은 것 또한 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인지 높은 콘크리트 난간으로 인해 내부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중압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상하이 공항에 도착해서 짧지만 긴 2박3일의 일정을 뒤로하고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알차게 구성된 답사였다.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교수님들과 현지 가이드, 수상자 친구들까지 함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준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행을 마쳤다.



박정인(공주대)

1. 행사명 : 2014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해외건축탐방
2. 탐방기간 : 2014. 12. 5(금) ~ 7(일), 2박 3일
3. 탐방지역 : 중국 상하이&닝보&항주

정기총회 개최 현황

□ 제49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6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3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을 비롯한 7개 안건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수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건축사현장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영수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격려해준 고문님들과 임원님들,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님,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임기 동안 소감을 밝히고 "총회 안건에 대해 아낌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할 부분이 있다면 더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내외빈의 축사가 있었으며, 본협회 추천 공로회원 및 외부인사 6명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었으며, 단체표창 최우수상은 경상북도 건축사회가, 우수상은 충청남도건축사회가 각각 받았다. 아울러 전국 건축대학 최우수졸업생 7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8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한 다음 추대회원에 대한 추대 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부의안건에는 ▲정관개정의 건 ▲2014년 건설기술 자경력관리회계 추경예산안 추인의 건 ▲2014년 건축연구위원회 추경예산안 추인의 건 ▲2014년 결산의 건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5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이다.

이중 비상근부회장 1인을 추가하는 내용(4명→5명)의 정관개정의 건은 부결됐으며, 나머지 6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51억 8,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 협회의 본격적인 사업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치러진 감사선거에서는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이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장 건축사는 유효투표수 302표 중 192표를 획득

득, 과반수를 넘겨 당선을 확정지었다. 장 건축사는 "신임 회장과 함께 회원을 위한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2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1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조충기 회장은 49회 정기총회에 회장 당선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총회에서 "지난 1월 당선 이후, 많은 회원들을 만나 여러 조언과 당부를 겸허히 들으며 준비하고 있다. 임기 동안 협회와 건축사 회원님들의 발전을 위해 공약사항들을 충실히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신임이사 10명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협회 임무에 돌입한다.



- 1 _ 개회를 선언하는 김영수 회장
- 4 _ 제31대 조충기 회장의 당선인사
- 2 _ 공로회원에게 공로패 수여
- 5 _ 장양순 신임 감사의 당선사례
- 3 _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
- 6 _ 퇴임 임원

□ 49회 정기총회 선출 이사 명단 (가나다순)



김봉회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前경기도건축사회 회장
現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現경기도 건축정책위원



김인철

(주)건축사사무소 세화건축
前안양지역건축사회 회장
前경기도건축사회 회장
現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무귀

건축사사무소 동림
前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前새진주로타리클럽 회장
前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박준승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존
前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現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
現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양정기

(주)샐터 종합건축사사무소
前서울특별시 동부감리단 운영위원
現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現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



윤혁경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現(사)한국경관학회 부회장
現(사)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現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이근창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現UIA(국제건축사연맹) 이사
前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 회장
前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이성우

(주)영탑 종합건축사사무소
現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現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前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아희

(주)경인 건축사사무소
現국토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위원
現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실사위원
現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



한재희

건축사사무소 석산
前청주지역건축사회 회장
現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前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

제49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부결
- 제2호의안 : 2014년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추경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4년 건축연구원회계 추경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4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5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감사(1인) : 장양순 회원
- 이사(10인) : 회장 당선인에게 위임함.

이사회 개최 현황

□ 제2회 이사회

2015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1일(수) 오후2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 개정의 건」, 이 논의 되었으며, 부의안건으로 「보수규정 개정의 건」, 「제31대 회장선거 선거기탁금 정산잔여금 처분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산 처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2014년도 결산의 건」,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5년도 실천계획(안) 수립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제49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제49회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2015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의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보수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제31대 회장선거 선거기탁금 정산잔여금 처분의 건
- 제31대 회장선거 선거기탁금 정산잔여금을 장학회 회계로 출연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리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제49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2014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제49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5년도 실천계획(안) 수립의 건
- 원안대로 제49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 원안대로 제49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8호의안 : 제49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제49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9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의 건
- 추대회원 대상자(32명)를 원안대로 추대하여 제49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10호의안 : 제49회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 공로패 등 표창대상자 41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49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기로 함.
- 제11호의안 : 2015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위원회 개최 현황

□ 2015년도 제1회 법제위, 녹색위 합동회의

제1회 녹색위 합동회의가 지난 2월 12일(목) 오전10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구조기준 및 복합재료성능 모니터링관련 대책마련의 건
 - 모니터링과 관련 사항을 공문을 통하여 회원에게 알리기로 함
- 제2호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건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의 제한적 허용을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층간 소음방지 구조기준 제정안 검토에 관한 건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검토의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견 없음.
- 제5호 :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검토의 건
 - 제6조제3호 선택적으로 보조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의 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8종제2항제4호, 제8조제3항 삭제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녹색건축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회의

녹색건축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회의가 지난 2월 12일(목) 오후2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개선안 검토에 관한 건
 - 국토부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회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5년도 제1회 국제위원회

제1회 국제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월) 오후4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젊은 건축사를 위한 ARCASIA Travel Prize에 대한 건
 - 작품제출을 우리협회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ARCASIA에 제안하도록 논의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통해 다수의 회원이 참석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2호 : ARCASIA 건축상에 대한 건
 - 우리나라 관계자가 심사위원에도 참여토록 노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유관단체 등에도 안내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건축계 소식

우리협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우리협회는 3월 6일(목) 오전 11시에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광우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종률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이상정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박경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권영숙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대내외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취임식은 제30대 김영수 회장의 이임사로 시작하여 제31대 조충기 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김영수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제게 가장 큰 행운은 협회활동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특히 저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났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 나은 협회를 위해 고민하며, 발로 뛰고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다”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 앞으로도 험난한 바람과 파도가 있겠지만 신임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가 모두 힘을 합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와 국민을 위해 순항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31대 조충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으로서 전 회원님들의 손으로 직접 뽑힌 첫 직선제 회장이란 점에서 더욱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아직 젊은 협회다. 우리는 단지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10조 설계시장, 1인 평균 5억수주, 회비와 교육비의 제로화인 ‘Ten-Five-Zero’는 우리의 비전이며 최소한의 목표다. 이러한 명확한 비전을 견지하고 임기동안 사업에 주력하고자 한다. 평범한 회원을 외면하는 협회는 오래 번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 협회 50년 역사를 기반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우 부회장의 축사와 장양순 신임감사가 작사, 작곡한 “건축사의 노래”성악공연이 진행됐다. 김영수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전임 김영수 회장이 신임 조충기 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는 협회기전달식이 이어졌다.



2년간 협회를 위해 노력한 김의중 부회장



협회 고부수대 회개

또 감사 이·취임식이 진행돼 이임하는 김득수 감사에게 공로패 전달과 신임 장양순 감사의 취임인사도 함께 있었다. 장양순 신임감사는 취임사에서 “집행부와 감사는 직제상 대치점에서 있지만 회원과 협회를 위한다는 기본은 모두 같다. 따라서 본인의 말바르기가 주마가 편이 되어 건강하고 능력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만들어지는데 밑거름으로 쓰여지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퇴임하는 이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는 한편, 신임 이사 소개, 축하공연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식을 마쳤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간담회 전경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대구건축사회)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지난 2월 6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건축사회 유흥재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 회원들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건축사회와 건교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설계·감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이를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꾸준한 교류와 의견 청취를 통해,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 31개 품목 선정



우리협회는 우수건축자재추천제 31개 품목(21개 업체)을 선정하고, 지난 2월 12일 추천서 교부식을 가졌다. 이날 교부식에는 제30대 협회 김영수 회장과 사업위원회 장현수 위원장, 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자재들은 지난해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2014'에 전시된 제품들로, 각 시도건축사회 건축사회원 292명이 전시기간동안 1차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건축자재추천 TF팀에서 2차 심사를 했다. 한편 선정된 31개 우수건축자재들은 건축문화신문 '업체탐방'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밀양지역건축사회-밀양시 MOU체결



밀양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월 12일 밀양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키로 했다.

협약은 ▲밀양시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상호 노력 ▲공용건축물 신축 설계시 설계도서 공동으로 검토 ▲각종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시 설계비 50% 감면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65명이 우선적으로 건축설계비의 50%를 감면받게 됐다.

안동지역건축사회 지역 소외계층에 '농촌사랑 상품권' 전달



안동지역건축사회는 사랑나눔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농촌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지난 2월 16일 길안면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안동넷(www.andong.net)에 따르면 상품권은 길안면의 가정위탁가정, 장애가정, 조손가정, 정신장애가정, 지적장애가정 등 다방면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10세대를 선정해 세대 당 10만원씩 전달했다. 안동지역건축사회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와 성금을 지원해 사랑나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건축사회 3월 정기총회 잇달아, 회장 선출

전국 시도건축사회는 3월 한 달 동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한다. 2015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및 당선자, 출마자는 다음과 같다.

(3.20 기준)

일자	건축사회	시간	장 소	회장선거 출마 및 당선자 현황
3/12(목)	경 남	13:00	경남도청 도민홀	조용범
3/13(금)	광 주	10: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정명철
	경 북	11:00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이재호
3/16(월)	전 남	13:30	에코그랜드호텔	박용목
3/17(화)	충 북	10:30	명암타워 그랜드볼룸	김성진
3/18(수)	대 전	14:00	오페라웨딩 3층	김재범
3/19(목)	대 구	15:00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	최혁준
	전 북	15:30	오펠리스	전병갑 회장 취임
3/24(화)	울 산	16:00	울산MBC컨벤션 2층 아모레홀	김광중, 손진락
3/25(수)	경 기	10:0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	황정복 회장 취임
	부 산	15:00	농심 호텔	김동수, 이만희
3/26(목)	인 천	15:00	송도 컨벤시아 2층	이재식, 윤희경, 김장섭, 한용희
	충 남	10:30	충청남도건축사회 신축회관	박정준 회장 취임
	서 울	14:00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이원희, 석정호, 조재용, 박일경
3/27(금)	강 원	11:00	원주 인터볼고	이재춘
	세 종	11:00	세종문화원 소강당	회장선거 없음
	제 주	18:00	제주칼호텔 2층	강영준

건설기술자 『정기관리자』제도 및 신청 안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체계(경력신고 시 경력건수에 따라 부과)가 신고 건수가 많은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기술자의 수수료 부담완화와 납부 편의를 위하여 **정기관리자 제도(연관리비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사 및 건설기술자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정기관리자로 전환하면 2년간 관리제도 변경 불가

● 관리 비용 비교

구 분	일반등록자	정기관리자
최초등록시	최초등록수수료 50,000원	정기관리자 등록비 70,000원 ※ 기납부 최초등록수수료(등록비)가 있는 경우 · '13.6월 이전 등록자 : 3만원 차감 · '13.7월 이후 등록자 : 5만원 차감
경력신고시	경력신고수수료 6,000원~90,000원	정기관리자 경력신고비 24,000원/년
심의경정시	심의경정수수료 30,000원~150,000원	

● 정기관리자 수수료 부과 기준

구 분	부과금액	부 과 기 준
등록비	70,000원	■ 정기관리자로 최초 신청시 부과하고, 최초등록수수료는 면제 ■ 기납부 최초등록수수료(등록비)가 있는 경우, 기 납부액 차감 · '13.6월 이전 등록자 : 3만원 차감 · '13.7월 이후 등록자 : 5만원 차감
경력신고비 (연관리비)	24,000원	■ 정기관리자 신청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최초경력 신고시 24,000원 부과
경력신고, 심의경정수수료	면 제	■ 정기관리자로 신청한 경우 경력신고, 심의경정수수료 면제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건설기술자의 경우 정기관리자로 등록하면 보다 원활하게 경력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관리자 신청방법

- 정기관리자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시·도 건축사회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관리자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기관리자 등록비와 당해 연도 관리비를 시·도 건축사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문 의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5년 2월말

시도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사무소 없음	사무소 합계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서울	2,418	25.6%	974	18	0	992	917	113	36	15	10	1,091	33	2,116
부산	808	8.5%	566	6	2	574	139	24	6	2	1	172	4	750
대구	731	7.7%	557	13	5	575	71	12	5	2	1	91	10	676
인천	394	4.2%	303	2	0	305	61	7	1	0	0	69	9	383
광주	317	3.4%	234	1	0	235	53	5	1	2	1	62	2	299
대전	359	3.8%	269	5	0	274	36	7	3	1	1	48	3	325
울산	243	2.6%	207	4	0	211	19	2	0	1	0	22	1	234
세종	57	0.6%	31	0	0	31	18	4	0	0	0	22	0	53
경기	1,286	13.6%	923	3	0	926	273	14	5	1	1	294	25	1,245
강원	253	2.7%	209	2	0	211	31	2	0	1	0	34	1	246
충북	329	3.5%	247	2	0	249	47	4	2	2	1	56	1	306
충남	363	3.8%	291	2	0	293	52	6	0	1	0	59	0	352
전북	334	3.5%	280	4	0	284	31	6	0	0	0	37	3	324
전남	260	2.7%	220	0	0	220	31	1	1	0	0	33	4	257
경북	529	5.6%	461	5	1	467	41	5	0	0	0	46	4	517
경남	597	6.3%	537	3	0	540	46	4	0	0	0	50	0	590
제주	179	1.9%	146	0	0	146	24	3	0	0	0	27	3	176
합 계	9,457	100%	6,455	70	8	6,533	1,890	219	60	28	16	2,213	103	8,849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2월초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933	4,106
서울	4,058	2,644
부산	792	185
대구	695	115
인천	386	13
광주	316	103
대전	372	76
울산	240	56
경기	1,473	195
강원	262	31
충북	329	98
충남	334	75
전북	340	46
전남	279	94
경북	507	49
경남	612	94
제주	183	74
세종	53	21
기타	1,702	137
비고	회원 : 9,303 / 비회원 : 3,630	대학 : 3,774 / 대학원 : 332